

1999년도

碩士學位(Th.M) 請求論文

제 목 :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부 제 : (삼위일체와의 관계와
「타락전 선택」에 관하여)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組織神學專攻

정 동 곤

정동곤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철 印 em

審査委員 김 서 봉 印 S.B.K

審査委員 박 동 근 印 P.D.K.

審査委員 김 영 규 印 Gyeong Kyu Kim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년 12 월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비를 비롯해서 많은 물질적 후원과 정신적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Th.M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함께 했던 조직학회 임원들과 회원들인 김석노, 김종교, 신정희, 엄현직, 원성운, 박상봉 이상의 원우들과 저희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김성봉 교수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3년동안 독일어 공부를 도와주신 강승완 목사님과 함께 땀을 흘린 조성재, 이광호, 김지훈, 김남진, 정진수 이상의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교정해 주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신 오집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1999년 12월

정 동 곤

- 목 차 -

I. 序 論	3
1. 연구 동기와 목적	3
2. 연구 방향	8
II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구조	10
1 삼위일체의 개괄	10
2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15
III. 삼위일체와 예정론의 관계	19
IV. 예정교리의 논쟁사	22
1 예정교리의 흐름	22
2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의 비교	28
V. 칼빈의 예정관	31
VI. 도르트회의와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논의된 예정론 의 성격	43
1 선택과 유기의 시기와 관련하여	43

2 선택과 유기의 대상과 관련하여	46
VII. 고마루스 예정관	50
1 고마루스의 활동	50
2 도르트회의에서 주장한 고마루스의 예정론	52
(1) 인간의 일반적인 예정에 관하여	53
(2) 특별한 예정 혹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선택에 관하여 ...	57
(3) 진노에 이르는 인간의 특별한 유기에 관하여	64
VIII.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인 타락전 선택	69
IX. 結 論	74
참고문헌(Bibliography)	77

I. 序 論

1. 연구 동기와 목적

신학적 진리 혹은 성경적 진리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 진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과학적 진리는 나타난 결과만을 중시하고 그 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과학의 한계성을 잘 드러내 주는데 과학은 원인을 모르고 단지 가설이라는 전제위에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서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외부와의 창문역할을 하고 있는 눈이나 귀, 피부의 여러감각 등은 그리 온전한 창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물론 망원경이나 현미경 보청기를 통해서 그 창문의 역량을 높힐 수 있고 다양한 조작을 통하여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실체를 볼 수는 없다. 눈에 나타나는 세계가 전부인양 떠들어서도 안되며 그 것만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호기를 부려서도 안된다.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항상 제한성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근본을 아는 것이 된다. 특별히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설명을 필요로하지 않아도 진리 자체로서 있으면서 드러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현현과 말씀을 통하여 “친히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Deus se nobis patefacit)” 계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神知識에 본질적 원리이고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피조물 안에 어떤 신지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의 본질적 원리이고 신학의 공리이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

님이 계시하셔야 가능한 것이다.¹⁾

그러므로 신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의 학문과는 다른 전제(Voraussetzungen), 즉 계시(Offenbarung)위에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문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학의 구별성은 점점 상실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노래하고 사람의 업적을 높이는 시대가 도래한지 이미 오랜 세월이다. 세상의 학문이 인간의 탐구와 노력으로 하나의 사실을 도출해 내는 귀납법적 연구방법이라면, 이에반하여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²⁾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학문이기에 신학을 하는 자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모든 학문의 출발은 신학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신학이 세상 학문에 종속된 듯한 인상을 준다. 기독교의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하고 또 다른 아류들은 성경을 시대의 산물로 취급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진리가 가장 풍성했던 17세기의 정신과 신학을 지금에 소개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17세기의 찬란한 신학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이가 21세기하에 다시 개혁신학의 진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다면 21세기는 다시금 귀한 歷史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16세기의 종교개혁(Reformation)의 주역들과 그 이후 17세기의 도르트회의의 주인공들의 성격과 업적을 귀하게 여기고 이 논고에서는 칼빈과 고마루스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인 예정론의 의미와 성격을 밝히고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예정론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전

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I", (서울 : 김영규, 1999), pp. 29~31.

2)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Uitgeverijk Kok - Kampen, 7e druk 1998), deel 2, p. 302.

"Immers wij kunnen van God niet spreken dan op grond van zijne openbaring"

선택」과 「타락후 선택」이 무엇인지와 차이점과 그리고 어느것이 더욱 개혁주의 정신에 적합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르트회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결정문서에서의 예정론의 성격을 소개하고 여기서 “타락전 선택”이 「엄밀한 개혁주의」의 예정관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타락전 선택」은 칼빈, 베자, 피스카토르, 마르티르 페어밀리우스, 쾨키우스, 우르시누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인데 도르트회의가 열릴 쯤에는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페스투스, 홈미우스(Festus Hommius), 트리글란드(Trigland)가 「타락전 선택」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 고마루스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Hieron. Vogelius와 Casp. Sibelius가 이전의 「타락전 선택」을 계속 고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도르트회의 참석자들은 「타락후 선택」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레이든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Polyander, Walaeus, Thysius, Lubbertus와 영국의 대표자들, 하이델베르크 대표자들, 제네바, 브레멘, 엠덴, 벨직, 북부 홀란드, 젤란드, 우트레이트, 프리슬란트, 호로링엔에서 온 대표자들은 거의 「타락후 선택」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한 인간(homo lapsus)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처럼 도르트회의에서는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이 논의 되었지만 알미니안을 정죄하는 수준에서 끝마쳤으며 칼빈과 고마루스의 주장을 엄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다만 「타락후 선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개혁주의”의 고백인 「타락전 선택」도 거부하지는 않은 수준에서 회의가 종결되었다.³⁾ 그래서 본인은 이 논문에서 칼빈과 고마루스의 사상과 도르트회의와 웨스트민스터회의를 중심으로 「타락전 선택」이 보다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에 부합한 것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시에 대한 최근까지의 지배적인 견해는 큰 범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 되었으므로 “계시의 발전”이라든지 “계시의 점진성” 혹은 “계시의 진전”이라는 개념이 팽배하였으나 본인은 바빙크와 김영규교수의 주장인 “계시의 판명성”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을 이 논고에

3)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pp. 49~50.

서 간략하게나마 다루려 한다. 바빙크는 계시의 산물인 역사를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단호히 거절하고 사회 문화의 진화까지도 거부한다. 이 부분과 관련한 바빙크의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인류가 삶의 높이와 무게와 길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능력에서도 계속 성장했다면 우리는 가족이나 국가나 인류에 있어서 진화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⁴⁾ 계속해서 바빙크는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오늘날의 문화국민의 능력과 재능들은, 그리이스인이나 로마인이나 바벨론인이나 앗시리아인들의 그것들 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니다”⁵⁾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앗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와 그리이스의 유적들은 우리에게 고도의 문명이 고대에도 존재했으며, 산업과 공예 과학과 예술 상업과 사회가 그 당시에 높은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⁶⁾고 바빙크는 말한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진화가 설에 따라 세밀하게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도는 무익한 것이다. 랑케(Ranke)가 모든 후속적인 기간이 선행하는 기간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헤겔의 체계가 요구했던 것처럼 시간상 앞선 기간이 전적으로 후속 기간을 위해 예비적인 것은 아니다”⁷⁾라고 바빙크는 랑케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헤겔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 시대가 결코 현대의 문화수준 보다 못하거나 뒤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도 발전하거나 진보한다는 식의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예정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역인 예정론보다도 예정을 하신 이가 누구이

4) 바빙크 著, 위거찬 譯, “계시 철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90), p. 123.

5) Ibid.

6) Ibid., p. 134.

7) Ibid.

며 예정을 하신 주체가 누구인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예정을 하신이를 먼저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예정의 주관자로서 삼위일체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삼위일체와 예정의 관계를 고찰하겠다. 예정과 삼위일체의 관계의 중요성은 하나의 중요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고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⁸⁾

그러기에 예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시 되는데 본론에서 먼저 개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정에 주체됨을 명확히 하고 삼위일체적 조명으로 예정을 살피고 첨예한 부분인 타락전 선택을 고찰하는 형식의 순서를 취하겠다. 또한 시대의 변천과 인문주의의 발달로 인간의 위치가 높아지고 휴머니즘이라는 美化된 포장으로 신학의 정수인 예정론을 경홀히 취급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선진들이 고백한 신앙고백과 그들의 사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높이고, 선택과 유기의 원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로

8) 지금까지는 구속사를 말할 때 기독교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왔다. 구약의 계시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신약의 계시는 오신 메시아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인데, 이에 반하여 바빙크의 주장은 구속에 있어서도 삼위일체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In de triniteitsleer klopt het hart van heel de openbaring Gods tot verlossing der menschheid). 이는 복음주의 신학이나 루터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중심의 聖經觀과는 다른 개혁주의 독특성인 것이다. 계속해서 구속사역에 대하여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면 "구속 사역은 철저히 삼위일체적이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안에 있다.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분 하나님의 사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분으로 나누워 진다; 그것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끝나쳐진다"라고 말한다 (Het werk der herschepping is door en door trinitarisch. Uit en door en in God zijn alle dingen. Het is één Goddelijk werk van het begin tot einde, en toch drievouding onderscheiden; het wordt besloten door de liefde des Vaders, de genade des Zoon en de gemeenschap des Heiligen Geestes).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deel 2, p. 301

만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시기적으로 앞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주체를 하나님으로 확고히 했던 것을 본 논문의 진행 순서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방향

최근들어 조직신학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각각 분리하여서 각론으로 연구하고 고찰하였다. 그러나 교부들의 문헌과 개혁주의 신학은 총론의 성격으로 신학을 다루었지 각론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한계에서만 신학을 고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고에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부분적으로 각론을 연구하는 조직신학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하려 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자기의 전공인 심장만을 연구하여 심장의 메카니즘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심장의 주인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신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이 넓게는 구약 또는 신약, 좁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을 전공했다해서 자기가 전공한 부분의 하나님만을 말해야 하며 그 안에서만 모든 신학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이고 전문적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이상한 신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본인은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부분을 볼 것을 제안한다.

다시말해서 기존의 연구는 예정론만을 다루었지 예정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정 자체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으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정의 주체자의 성격을 명시하고 삼위일체적인 조명하에 예정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인간에 대해서만 관심을 높여가는 시대에 예정을 말하므로 하나님에 대해 좀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인간의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예정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타락전 선택」이 「타락후 선택」보다 우선 더 성경적이며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이 「타락전 선택」을 주장하였기에 이 논고에서 타락전 선택을 개혁주의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

일신(一神, Divine Unity)론은 자연종교의 진리라면 삼위일체(Trinity)론은 계시종교의 진리인 것이다.⁹⁾ 자연종교는 유신론(有神論)의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의 존재 증명만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결국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발견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만 삼위일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이번 論考에서 本人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삼위일체에 대한 개혁주의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증명하기 위하여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삼위일체의 증명을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¹⁰⁾

1. 삼위일체의 개괄

삼위일체는 여러 이단을 규정하고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4~5세기에 발생한 아리안(Arian), 네스토리안(Nestorian) 그리고 유티키안(Eutychian)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에서부터 출발한다.¹¹⁾ 초대 교회뿐 아니라

9)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 13.

10)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293.

“Augustinus bedoelde dan ook niet, met deze analogieën en beelden de triniteit apriori te bewijzen; hij ging uit van het geloof, hij nam ze aan op grond van Gods Woord.”

11) William Cunningham, “Historical Theology”, volume 1, (Edmonton : Still

오늘날 까지도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의 범주에서 벗어난 신학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론에 해당하는 삼위일체의 이해는 기독교 전교리에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¹²⁾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이며, 모든 특별계시를 내던지는 것이 된다. 또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총체이자 요약이고, 본체이며 모든 교리의 뿌리이자 새언약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¹³⁾ 그러기에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삼위일체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었으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은 많이 생겨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형태의 모습과 모양으로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데, 즉 삼위일체는 조직신학에서 신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계시를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구약의 통일성의 문제를 명시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거나, 신약과 구약의 언약이 발전적이라거나 하는 문제를 거부하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에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중요한 기준선이기도 하다. 과거는 영지주

Waters Revival Books, 1991), p. 267.

12)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서울 :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 교재, 1999), p. 1.

13)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300.

“Met de belijdenis van Godsdrieëenheid staat en valt het gansche Christendom, de geheele bijzondere openbaring. Zij is de kern van het Christelijk geloof, de wortel aller dogmata, de substantie van het nieuwe verbond.”

14) 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 Sola scriptura und der trinitarische Gott als alleiniger Autor des Alten Testaments, (Seoul : 1994), p. 103. “Jede Gottesoffenbarung in den beiden Testamentern sei die einheitliche Offenbarung des dreieinigen Gottes.”

의와 마르시온이 득세를 하였다면 오늘날은 삼위일체를 양태론의 하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주장하여 역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시대라 하여 은사체험과 이적과 기적과 간증을 중시하는 풍조로 미국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 해도 과장을 듯 싶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 인생들에게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비밀의 중심인 삼위일체의 개념은 신약에서 비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가 구약에서 이미 시작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 것은 계시의 진전이나 발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세대주의와 양태론의 모든 근거를 타파하는 의미로써 중요하다. 아울러 삼위일체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이유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의 최고 정점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삼위일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¹⁵⁾ 우리 인

15)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226.

“Hooger nog dan de wezensnamen stijgt Gods openbaring in de nomina personalia, welke ons de onderscheidigen doen kennen, die er in de eenheid van zijn wezen bestaan. Deze openbaring begint reeds in het Oude Testament”. 위에 밑줄친 stijgt은 원형이 stijgen인데 이는 독일어에 steigen이고 영어로는 rise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이 동사의 뜻은 “발생하다. 시작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헨드릭슨은 stijgt를 progress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잘못 오역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의 2권에 해당하는 이승구 교수의 “개혁주의 신론”은 헨드릭의 영역 본을 번역한 것인데, 이 책에서는 progress를 “진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여 계시의 진보와 진전성 더 나아가 계시의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계시가 진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진보(progress)”라든지 “발전(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규교수는 계시를 설명할 때 “진전성” 혹은 “발전성”이란 용어는 적합치 않고 “판명성”이란 개념이 옳은 것으로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와 신학은 미국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므로 계시의 점진성이라든지 계시의 발전사관 개념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학도 독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 한다면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Aufklärung)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간이 만들어 내거나 유추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배경을 살펴보려면 저스틴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저스틴에서부터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이레니우스와 터틀리안에 의하여 보다 체계화 되었고 구체화 되었다. 저스틴은 직접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구약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통일성은 삼위일체라기 보다는 약간 기독교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이레니우스에서 저스틴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의 통일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주장하였다. 물론 성령도 언급은 하였지만 성령의 정확한 위격과 위치를 설명하는데는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삼위일체도 저스틴에서 출발하는 것 만큼은 시인해야 할 것이다. 저스틴은 「항상 같은 하나님(*qui semper idem est*)」이란 표현으로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¹⁶⁾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신학적 핵심 주제들은 저스틴에서부터 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저스틴과 같은 방식으로 이레니우스도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에 와서야 비로서 신구약의 통일성이 삼위일체의

위에 기록한 원문과 영역본을 대조하겠다. "When Scripture makes known to us only God's proper names but also his personal names, which indicate the distinctions existing within the unity of the divine essence, a certain progress in revelation becomes very evident."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승구,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p. 372. 참조.

16)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서울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강의 교재), p. 3.

17) *Ibid.*, p. 11

통일성으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레니우스 또한 저스틴이 말하였던 「항상 같은 하나님(*qui semper idem est*)」을 말하고 있으나 저스틴 보다는 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근거하여 “만물이 하나요 같은 실체에 속하였다. 즉 하나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Unius... et ejusdem substantiae sunt omnia, hoc est, ab uno et eodem Deo...*)”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레니우스도 삼위일체를 주장하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통일적 경륜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튼 이레니우스는 삼위일체의 확립과 모든 경륜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으로 강조하였고, 실체의 통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종속이론의 위험성이 다소간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 다음으로 터툴리안은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단순히 시간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첫째(*primus*), 둘째(*secundus*), 셋째(*teritus*)라는 분할 할 수 없는 수(*numerus sine divisione*)를 생각해 냈다. 그리고 성자에 관하여 말하기를 “다양성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다른 아들이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 다른 아들이요 분할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non tamen diversitate alium filium a patre, sed distributione, nec divisione alium, sed distinctione, quia non sit idem pater et filius, vel modulo alius ab alio. non quasi non et pater deus, et filius deus, et spiritus deus, et deus unusquisque, sed, quoniam retro et duo dii et duo domini praedicabantur, ut, ubi filius dei et domini*)”¹⁹⁾라고 언급했고 성령과 관련하여서는 “성령이 세 번째 신분이라 했을 때, 그 성령을 성부로부터 말미

18) *Ibid.*, pp. 13~14.

19) *Ibid.*, p. 20.

Tertullianus, *Adv. Praxeas*, 9. “...*non tamen diversitate alium filium a patre, sed distriutione, nec divisione alium, sed distinctione, quia non sit idem pater et filius, vel modulo alius ab alio*”.

암는 것 이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Hoc mihi et in tertium gradum dictum sit, quia spiritum non aliunde puto, quam a patre per filium)”²⁰⁾라고 말한다.

2.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지금까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과 교수들까지도 삼위일체를 시간의 흐름속에서 경률허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터틀리안이 말한 “경률허적 통일(Die ökonomische Einheit des trinitarischen Gottes)”의 삼위일체적 思考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대의 구분을 명확히 나누고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는 성령님의 시대로 시대를 구분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류들은 오늘날이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간증을 중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통일적 경률허(Die einheitliche Ökonomie des trinitarischen Gottes)”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터틀리안의 생각을 극복한 어거스틴과 이후의 칼빈의 思考이다. 어거스틴은 통일성(Einheit)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결코 세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되고 한분 하나님만이 된다고 말한다.²¹⁾ 아울러 김영규 교수는 “통일적 경률허(Die einheitliche Ökonomie des trinitarischen Gottes)”과 “경률허적 통일(Die ökonomische Einheit des trinitarischen Gottes)”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²²⁾

20) Ibid.

21) 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p. 105.

“Wenn nämlich der Vater Gott ist, der Sohn Gott ist, der Heilige Geist Gott ist, so heist er diese erhabene Dreieinigkeit doch nicht drei Götter, sondern nur einen Gott”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성하고 체계화시킨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거스틴 이후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크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어거스틴의 개념에 머무는 정도다. 그래서 개혁주의 근간이 되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적 논술을 살피고자 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주된 범주와 틀에 대하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같은 삼위일체 안에서 고유한 개체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 자체에 관한(ad se ipsa)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혹은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ad invicem, aut ad creaturam) 말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relative) 말하는 것임에 분명하다”²³⁾.

삼위일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라고 해도 결코 세 하나님(triplex)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성부는 근원(principium)이시고 성자는 발생하였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의 근원(principium)이시고 성령을 발출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신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성부와 성자는 근원이 되시나 성령은 근원이 될 수 없고 다만 피조물에 관하여는 성령도 근원이 되신다. 그 이유는 창조가 삼위일체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발생 시키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발출 하셨는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못한다.²⁴⁾ 물론 종속 이론도 역이 성립하지 않지만 발생과 발출이 종속이론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우스는 발생과 발출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여 종속이론으로 빠졌으나 어거스틴은 발생과 발출에 있어서 아리우스에 반대하여 시간의

22) Ibid., p. 103.

“Erst hier kann man die einheitliche Ökonomie des trinitarischen Gottes in aller Zeit und jedem Moment von der ökonomischen Einheit des trinitarischen Gottes unterscheiden.”

23)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p. 31.

24) Ibid., p. 32.

개념을 개입시켜 사고하는 것에 반대를 하였다.

첫째, 성부하나님에 대하여는 “성부라는 이름이 성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부는 상대적으로 성자에 대해서 근원(principium)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성령과 관계에서는 쉽게 성부가 그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근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근원이 아니라는 점이다”²⁵⁾ 그리고 발생과 발출에 관하여서는 항상 능동의 입장을 취하신다.

둘째,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발생과 관련하여서 성자는 수동의 입장을 취하시어 나신자(genitus)이시고 성부는 낳으신자(genitor)이신데 반하여 발출과 관련하여 성령은 능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발생과 발출은 피조세계에 있어서는 전혀 허용이 안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허용이 된다. 또한 James Ussher의 지적대로 발생의 경우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구문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조물에 관해서 제한적으로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능동적 사역이기에 주체가 가능하나 근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근원과 주체가 모두 허용된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발출하였다. 그러기에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주셨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동시에 두 위격으로 나오시되 동시에 나오셨는데 여기서 동시에란 의미에는 시간적 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략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말하면서 실체론적으로 다루기

25) Ibid., p. 32.

보다는 상호관계적으로 삼위일체를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자체에 관하여(ad se ipsa)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근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도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관련하여서는 삼위일체가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삼위일체의 구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사역인 창조와 섭리, 구속의 역사들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일은 삼위일체로서 사역하신다.²⁶⁾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내적 사역이든 아니면 외적 사역이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분리적으로 생각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신성안에 세 위격들의 존재의 질서는 가능하나 외부로 향한 삼위일체의 役事는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26) Ibid., p. 33.

III. 삼위일체와 예정론의 관계

위에서 고찰한 결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사역하신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시고(*quamvis Pater et Filius, Spiritus sanctus; sicus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한다(*inseparabiliter operari Trinitatem in omni re quam Deus operatur*)”²⁷⁾ 라는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김영규 교수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입장을 자신의 논문에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어거스틴은 유일하고 참된 한분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하신다고 주장한다”²⁸⁾고 자신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바빙크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로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의 원리(즉 한분 하나님)를 가지고 있으나 세분의 위격을 통하여 위치가 정립되고, 세분의 위격은 구속과 성화로써의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각자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uit van den Vader*) 기원되고, 아들을 통하여(*door den Zoon*) 성취되고, 성령안에서(*in den Heiligen Geest*) 완성된다. 그래서 세분의 위격이 외부로 향한 사역들에서 또한 황금분할로 구분되어 진다.”²⁹⁾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의 관

27) Ibid., p. 35.

Augustinus, *De Trinitate*, I, iv, p 7~8.

조성재, “엄밀한 개혁주의에서본 G. Vos의 성경신학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유용성과 한계점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년 졸업논문), p. 68.

28) 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p 105.

“Augustinus einen alleinigen wahren Gott(*solus verus Deus*), der am Anfang bis zum Ende wirkt.”

29)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286.

“Alle werken Gods naar buiten hebben één principium, nl. God, maar ze

계와 사역을 말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전치사가 중요한데 “성부로 부터 (ex), 성자를 통하여(per), 성령 안에서(in)”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

계속해서 바빙크의 교리학(Gereformeerde Dogmatiek)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함께 처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다. 우리가 이미 배워 알아왔던 것처럼 위격의 특성들은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영원한 사역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리고 성자와 함께 성령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 자신에게 갖도록 하신다(요 5:26). 그리고 존재의 공동체, 즉 삼위가 존재하는 교제는 하나의 절대적인 활동의 생명이다; 성부는 세계의 기초전에 성자를 알았고 성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마 11:27, 요 17:24),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파악하신다(고전 2:10).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내재적인 것이다”³⁰⁾라고 바빙크는 자신의 신학적 안목을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삼위일체 자체에 관한 위격의 관계성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바빙크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재적 사역(*opera ad intra*)과

komen tot stand door de coöperatie der drie personen, die zoowel in de werken der schepping als in die der verlossing en der heiligmaking een eigen plaats innemen en een eigen taak vervullen. Alles gaat uit van den Vader, wordt volbracht door den Zoon, en voltooid in den Heiligen Geest. Ja, tot op zekere hoogte Worden ook de werken naar buiten onder de drie personen verdeeld.”

30) Ibid., p. 303.

“Daarom is Hij ook niet eerst met de schepping beginnen te werken, maar zijne werken zijn van en tot in alle eeuwigheid. De personeele eigenschappen, welke wij vroeger hebben leeren kennen, zijn immanente en eeuwige werken Gods. De Vader geeft eeuwiglijk aan den Zoon, en met den Zoon aan den Geest, het leven te hebben in zichzelf, Joh. 5 : 26. En de gemeenschap des wezens, die tusschen de drie personen bestaat, is een leven van absolute werkzaamheid; de Vader kent en heeft den Zoon lief eeuwiglijk, van voor de grondlegging der wereld, Matth. 11 : 27, Joh. 17 : 24, en de Geest onderzoekt de diepten Gods, 1 Cor. 2 : 10. Al deze werken Gods zijn immanente.”

외재적 사역(*opera ad extra*)으로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은 하나님 밖으로 되어진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구별된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분리한다.”³¹⁾ 그리고 내적 사역으로는 작정과 예정을 말하고 있고 외적 사역으로는 창조, 섭리, 구속 등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³²⁾ 벨코프도 또한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사역에다가 작정과 예정을 두고 있으며 바빙크와 같이 내재적 사역과 외재적 사역을 구분은 하지만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 보존, 섭리, 통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지는 않는다.³³⁾ 정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작정과 예정을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으로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정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공동의 사역으로 행하셨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인 창조, 섭리, 구속, 보존,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정을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語不成說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적 사역에서 그러했지만 내적 사역인 “예정”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사역 하셨다. 예정에 있어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기원되고,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안에서 완성된 것이다(*Alles gaat uit van den Vader, wordt volbracht door den Zoon, en voltooid in den Heiligen Geest. Ja, tot op zekere hoogte Worden ook de werken naar buiten onder de drie personen verdeeld*).³⁴⁾

31) Ibid.

“Van deze zuiver immanente werken Gods zijn onderscheiden die, welke betrekking hebben op de scheselen, die buiten Gods wezen zijn zullen. Deze vallen weder uiteen in werken Gods ad intra en ad extra.”

32)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487.

33)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 302.

34)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286.

IV. 예정교리의 논쟁사

1. 예정교리의 흐름

앞에서 삼위일체와 예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예정에 관한 논쟁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려고 한다. 먼저 예정론을 말하면 쉽게 Calvin을 떠올릴 수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Calvin 혼자서 예정론을 주장하고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즉 예정론이 칼빈의 전유물은 아닌 것이다. Calvin이 독자적으로 예정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정을 말하고 있기에 Calvin역시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사에 있어서 예정교리의 발전은 Augustine, Zwingli, Luther등이 있었고 또 초기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Wycliffe와 Huss등이 있었다.³⁵⁾ 그러나 Calvin에 이르러서 엄밀한 예정론이 주장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앞선 신학자들이 「타락후 예정」을 주장한데 반하여 Zwingli, Luther, Calvin등 종교개혁자 등에 의하여 「타락전 선택」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터는 개혁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달리 하였고 또한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타락전 선택자는 아니었던 반면에 Calvin은 처음부터 엄밀한 예정을 말하고 체계화 하였기에 예정을 말하면 Calvin을 떠올리게 한다. Calvin은 「기독교 강요」초판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온건하게 표현하였으나, 스트라스부르크(Strassburg)에서 쓴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구속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자유가 없음과 오직 선택에 기인함을 힘있게 집필하고 있다.³⁶⁾

35) 신학지남, 제 30 권 제 4 호, 여운세, “예정교리 발전사”,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 1963, 12), p. 58.

본서는 여운세씨가 Harry Buis의 글인 “Historie Protestantism and Psedestination”을 요약한 것임.

36)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승구”, pp. 515, 522~24.

그리고 예정론 논쟁사를 생각하면 칼빈과 알미니안을 쉽게 떠올리게 하는데 알미니우스는 17세기 도르트회의에서 등장한 인물이고 칼빈은 16세기 사람이므로 약 한세기를 앞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칼빈과 알미니안의 비교는 시대의 간격이 있다. 칼빈 시대에도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피기우스다. 그러므로 도르트회의(특히 고마투스)와 알미니안을 비교하고 칼빈은 피기우스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정론 논쟁의 시초는 더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미 9세기 847년에 Goteschalculus의 이중 예정론에 대한 異端性 시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본인이 이러한 인물들을 비교를 하는 것은 예정과 관련하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 사람들만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동시대의 논의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에 동시대에 논쟁을 같이 하였던 인물들을 거론한 것이다.

예정론을 처음 체계화 사람은 물론 Calvin이 아니고 Augustine이었고 그것을 확고히 개혁신학의 모토로 발전시킨 사람은 칼빈이다. 이상과 같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Augustine과 같은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Harry Buis는 초대 교회의 상황이 Gnostics의 회랍적인 運命論에 반대하여 “자유의지(free will)”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은 Augustine과 같은 주장은 하지 못했으나 교부들도 “神의 恩寵(grace of God)”의 개념은 있었다.³⁷⁾

그러나 어거스틴은 펠라기안의 논쟁 이전에 벌써 예정론을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연구를 통해 예정론에 이르렀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았다(De deno pers. c. 19). 397년에 “심플리키아누스에게 한 질문(Quaestiones ad Simplicianum)”에서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제시했고, “성도들의 예정(De

37) 신학지남, p. 58.

praedestinatione sanctorum)”과 “견인의 선물에 대하여(De dono perserverantiae)”에서 예정교리를 확대 발전시켰다. 우선 어거스틴은 “예지(foreknowledge)”와 “예정(foreordination)”을 구별하였는데, 예지가 예정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보았다. “예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예지한다는 것이다”(De dono perserverantiae, 18 ; 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10, 19). 여기서 어거스틴은 예정과 예지를 혼동해서가 아니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있는 것이므로 알미니안이 주장한 「예지예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예정은 인간의 공적이나 가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정이 아니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정인데, 즉 “믿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믿게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17).³⁸⁾

또한 어거스틴은 예정에 유기를 포함시키는데 가끔은 유기를 예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대개 예정이란 구원으로 미리 정하심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예정된 사람의 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수는 불변적이다. 예정된 사람은 시간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세례와 믿음을 받고, 무엇보다 “견인의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예정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³⁹⁾

어거스틴의 이러한 주장은 에베소 공의회(the Council of Ephesus, 431)에서 받아들여졌고, 어거스틴에게 반대의 주장을 한 펠라기우스와 네스토리안주의는 함께 정죄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고트살크⁴⁰⁾시대의 예정론 논쟁에서는 오히려 유사펠라기안적 관점이나 펠라기우스의 관점이 널리 전파되어서 어거스틴주의를 따르는 코트살크가 힝크마(Hincmar)⁴¹⁾, 라바누스

38)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승구, p. 503.

39) Ibid., pp. 502~503.

40) Gottschalk of Orbais(? ~ 868/9). 프랑스에 살던 삭손 수도사로서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그 입장에 동조함. 849년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수도원에 감금됨.

41) Hincmar of Reims(? ~ 882). Gottschalk에 반대한 대표적 인물. 그는 하나

(Rhabanus)⁴²⁾ 그리고 스코투스 에뤼게나(Erigena)⁴³⁾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키에르시 공의회(the Synod of Chiersy, 853)에서 어거스틴주의와 고트살크가 정죄되고 유사펠라기안 주의가 승리했던 예정론 논쟁사의 암울했던 시대도 있었다.⁴⁴⁾ 이것은 예정론 논쟁에 있어서 오히려 퇴보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識者들은 고트살크의 정죄와 키에르시 공의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예를 들자면 프루덴티우스(Prudentius), 레미기우스(Remigius), 라트람누스(Ratranus), 루푸스(Lupus)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중예정(eene gemina praedestinatio)을 변증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중예정은 “영광으로의 예정”과 “멸망으로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면, “영광으로의 예정은 인간의 공로가 없는 것이고, 예지된 신앙과 공적이 조건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은혜, 믿음, 공적 이러한 기타 등등의 모든 원인이 되는 예정이다. 파멸로의 예정은 물론 죄에 대한 예정의 방식은 아닐찌라도, 적어도 유기적 가능성으로써, 죄의 허용과 예지를 말한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디모테전서 2:4의 모든 사람이란 표현은 예외없이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가지각색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했다.”⁴⁵⁾ 이들의 이같은 주장으로 발렌스 공의회(the Synod of Valence,

남께서는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가르쳤으며, Quiercy or Quierzy or Ciercy 공의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42) Rhabanus Maurus(784 ~ 856). 이는 Gottschalk가 있던 수도원 원장으로서 예정론에서도, 성찬론에서도 Gottschalk와는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43) John Scotus Erigena(810 ~ 877 이후).

44)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p. 312~313.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승구, pp. 504~505.

45)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313.

“de praedestinatio ad gloriam is zonder eenige verdienste, geschiedt niet om praevisa fides, merita, maar is oorzaak van de praedestinatio ad gratiam, fidem, merita enz.; de praedestinatio ad damnationem echter sluit niet op die wijze de praedestinatio ad peccata in, maar is, althans als reprobatio positiva, van de praescientia en permissio der zonden afhankelijk. Vandaar dat 1 Tim. 2:4 nog beperkt werd opgevat, niet van alle menschen hoofd voor hoofd maar

855)에서는 다시 어거스틴주의의 예정론이 받아들여 졌고 후기 스콜라 신학의 견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엄밀하게 “죄로의 예정”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유기(reprobation)”란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⁴⁶⁾

예정론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 계승 발전하였다. 그중에서 루터는 처음에는 쾰빙글리나 칼빈과 같이 예정론을 주장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루터의 예정론은 단지 인간학적 근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는데, 즉 인간의 죄로 인한 무능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보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바라심을 전면내 내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논의 되었던 예정을 인간의 구원부분과 관련시켜 상당히 인간중심으로 예정을 끌어 내린 결과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도르트회의에서 정죄된 항론파(the Remonstrants)를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⁴⁷⁾

루터파가 점차적으로 종교개혁의 입장을 희석시켜 나간 반면에 개혁파 진영의 입장은 원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쾰빙글리는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인간학적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신론에서 그 근거를 확고히 두고서 예정론을 강하게 변증하였다.⁴⁸⁾ 그러나 아쉽게도 쾰빙글리의 신학이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고 개혁 초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예정(특히 선택)을 신론과 관련해서 보다는 구원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쾰빙글리의 관점이 좀더 엄밀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예정을 신론에 두는 것은 선험적 순서(apriorische orde)에 따르는 것이 되고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루면 후협적 순서(aposteriorische orde)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엄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선험적 순서를 따랐고 루터파와 알미니안, 그리고 로마가톨릭과 근대 교의학자들은 점차로 후협적 순서를 따르기

van vele of allerlei menschen werd verstaan,”

46)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승구, p. 506.

47) Ibid., pp. 511~513.

48) Ibid., p. 515.

시작했다.⁴⁹⁾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정론에 있어서 중요한 事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애석하게도 역사적으로는 예정론 논쟁사에서나 교회사에서는 별반 중요하게 다루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로 우리는 사실 인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알기 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를 먼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구원론 다음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모든 신학적 사실을 구원론 다음에 두어야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본인은 반문하고 싶다.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등등 모든 신학은 구원론 다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인식의 순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왜 이토록 선형적 순서(a priori ordo)에 집착하였는가는 예정론이 단지 인간론적이고 구원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서 예정론을 주장하고 변증함에 있어서 개혁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정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순서로 예정론을 다루는 것은 유명론(唯名論)⁵⁰⁾적 신개념(een nominalistisch Godsbeğrip)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를 무미건조하다거나 생명력 없는 교리만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⁵¹⁾

49)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321.

50) 김성봉, “지난 2000년의 신학과 미래와 신학”, (서울 : 개성연 연구발표, 1999), pp. 2~3.

실재론(實在論) - 실재론은 보편자의 문제와 관련된 용어인데, 보편자들이 ‘그 자체’로서 혹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플라톤주의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리켜 실재론 혹은 중세실재론 혹은 논리적 실재론이라고 부른다. 의식, 주관과는 독립된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인식의 목적,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유명론(唯名論) - 유명론도 보편자의 문제와 관련된 용어인데, 보편자가 정말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은 ... ‘절대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유명론이라고 부른다. 유명론자들은 보편적 개념들이 사물들의 본성 속에 어떤 객관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51) Ibid., p. 322.

혹자는 단순히 敎理(Dogma)를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리는 이러한 산물으로써 취급하고 교리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성경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최근의 신학자들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필자는 반론하기를 교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반론하고 싶다. 본인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개혁주의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교리를 언급할 때 성경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경의 교리외에는 어느것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⁵²⁾ 그러므로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의 사건에 불과한 그야말로 객관성이 결여된 개개인의 주관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2.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의 비교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의 뿌리도 역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펠라기우스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게 하며, 모든 이에게 구원에 이르기엔 충분한 은혜를 부여케 하려는 작정 그리고 예지된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예지된 불신에 근거에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신 작정”

“Maar bij de Gereformeerden heeft de praedestinatie niet alleen een anthropologisch en soteriologisch, maar vooral ook een theologisch belang. Het gaat in haar niet allereerst om de zaligheid des menschen maar om de eere Gods. Ook met de synthetische, apriorische orde is een diep religieus belang gemeid. De bewering, dat deze orde een nominalistisch Godsbegrip zou onderstellen en een dor, levenloos dogma zou bieden, gelijk sommigen meenen, is daarom van allen grond ontbloot.”

52) Ibid.

“Want ook de strengste Calvinimten willen in den locus de Deo en in dien de decretis niets anders geven dan de leer der Schrift, den inhoud van Gods openbaring.”

을 말하면서 예정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로 말하였으나 어거스틴은 예지를 부정하면서 유기역시 예정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필연적 근거이고, 그의 뜻에 반하여 발생하는 것은 그의 의지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용하실 때면 그 허용은 긍정적이고, 유효한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그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허용하신는 것이다. 이미 여기에는 타락전 선택설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라는 입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중예정을 주장하는데 선택과 같이 유기도 예정의 한 부분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락전 선택이 맞는 것이다.⁵³⁾

그러나 타락과 예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17세기와 18세기 예정론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특히 도르트회와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에서 가장 엄밀하게 이 논쟁은 논의 되었다. 「타락전 선택론(Supralapsarianism)」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 상태를 결정하실 때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인간은 아직 창조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은 인간이었다고 가르친다. 반면에 「타락후 선택론(Infralapsarianism)」에서는 그 인간이 이미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이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예정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없다. 곧 전자는 예정이 영원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예정이 인간의 창조 및 타락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식의 대립은 없는 것이다.⁵⁴⁾

그런데 「타락전 선택(Supralapsarianism)」과 「타락후 선택(Infralapsarianism)」에 많은 오해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것은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을 생각을 하려면 우선 시간 개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타락전이나 타락후에서 타락을 기준으로해서 시간의 前後로 생각을 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였던 것 같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벌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벌콕프는 타락전 선

53)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역 이송구, pp. 519~20.

54) Heinrich Heppel, "Reformed Dogmatics", (1950), pp. 157~62.

택과 타락후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다. 그의 말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번역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글이 많이 틀린 것만은 사실이다.⁵⁵⁾

그러나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은 모두가 창세전에 혹은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기에 타락후 선택이라고 해서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었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도르트회의에서 첨예하게 논의된 예정론에서 개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정죄받은 알미니안 까지도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세상의 기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는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이 모두 창조전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데 동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전 선택”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타락후 선택”이라 해서 아담의 타락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식의 시간의 전후로 이해하는 주장을 개혁주의는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은 시간적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전히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예정이 단 순히 인류로부터 선택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류가운데서 선택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모두 개혁주의 예정론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 왔는데 알미니안이 주장한 「예지예정」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더 높은 차원의 개혁주의 안에서 엄밀하게 논의된 논쟁인 것이다.

55. 벨코프, p 326, 328. 벨코프는 타락전과 타락후를 시간의 흐름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는 시간이나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다만 선택할 대상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을 택 할 것이냐만 남아 있는 것이다.

V. 칼빈의 예정관

칼빈이 처음 출판한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1536년에 출판된 것이다. 이 초판에서는 칼빈이 예정교리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는다.⁵⁶⁾ 예정교리는 1539년 둘째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항목을 붙여 다루기 시작하여 1559년 최종판에서 그 분량이 상당히 증보된 것으로 보인다.⁵⁷⁾ 우선 칼빈은 예정론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⁵⁸⁾ 예정교리가 이 시대에서는 별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논의의 대상 밖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시대 풍조속에서도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칼빈의 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칼빈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⁹⁾ 칼빈은 예정론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말씀외에서 예정론을 추론하거나 단정짓는 것을 칼빈은 매우 위험스러워했으며 예정론의 신비는 결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람은 제한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정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때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⁶⁰⁾ 성경에서 우리는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칼빈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알아도 좋은 모든 일을 탐구할 때에,

56)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1”, (서울 : 김영규, 1999), p. 19.

5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 포드 배틀즈 서론/양낙홍 옮김,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p. 16.

58) 칼빈, “기독교 강요, 최종판”,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pp. 502, 505, 526~529, 556~557, 559, 588.

이 후부터는 “강요”라고 하겠음.

59) Ibid., p. 504.

60) Ibid., pp. 499~500.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주는 빛은 주의 말씀 뿐이다”⁶¹⁾. 칼빈은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을 말하고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은 자신있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칼빈의 말을 직접 보면은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려는 것이거나(요 12:24 참조)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 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 하지 말자. 여기에는 일조의 유식한 무식이 있기 때문이다.”⁶²⁾ 칼빈은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을 때는 과감히 유식한 무식인이 되자고 권면한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만이 유식이 아니라, 비록 지적 호기심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없으므로 침묵할 수 있는 입이 우리에게는 더욱 유식한 것이 된다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칼빈의 適定과 節道の 규범(regula modestae et sobrietatis)을 알 수 있다.⁶³⁾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구원론 부분에서 다룬다.⁶⁴⁾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예정론이 인간의 구원에만 한정되거나 축소된다고 말해서는 안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칼빈은 강요에서 교회론을 언급하면서 예정을 말하였기에 칼빈은 예정론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중시한다고 말한다⁶⁵⁾. 강요에서 칼빈은 구원론에서 예정을 다루고 있

61) Ibid., p. 503.

62) Ibid.

63)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I”, (서울 : 발행자-김영규, 1999), p. 32.

64)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헤롤드 나이트 영역, 기독교 학술연구원 국역,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97), p. 194.

빌헬름 니이젤(Wilhelm Niesel)은 선택교리를 신학체계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리고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택의 상대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개혁주의는 철두철미하게 예정을 신론 부분에서 다루었고 특히 칼빈은 자신의 모든 신학에 있어서 예정을 토대로 삼고 있다.

프랑시스 웬델(Francois Wendel),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97), p. 288. 참조

65)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기는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의 원리를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즉 전인류와 모든 만물에까지 예정안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전부 다루면서 예정을 말하기에 예정의 축소를 뜻하거나 인간에게만 국한 했다고 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칼빈은 예정론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De aeterna Praedestinatione Dei)”⁶⁶⁾란 자신에 논문에서 자신

1997), pp. 267~271.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칼빈은 예정에 있어서 인간의 목적을 3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②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③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기 위하여 以上과같이 칼빈의 예정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3가지로 본다.

본인은 클로스터가 니이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칼빈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클로스터 박사는 “칼빈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이 「중심교리」이며, 이 교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칼빈은 자신의 전 신학체계를 형성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클로스터가 칼빈의 신학을 誤認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분은 「칼빈신학」의 핵심을 지나치고 중요하지 않은 변두리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것은 칼빈의 예정에 있어서 「인간창조의 제2목적」만을 고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클로스터는 “칼빈은 예정론을 주요 주제로 삼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지도 아니 하였다. 1559년의 최종판에서 그는 3권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기독교 강요의 3/4이 다 지날 때까지)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심지어 “예정론 교리를 칼빈 신학의 논리적 「지주」로 삼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후의 주제 배치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순서만에 집착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그는 분명히 「예정론」이 칼빈신학의 중심사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이는 「강요」에서 나타난 순서만을 가지고 칼빈을 평가하려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과 논리적이지도 않은 글을 세상에 유출시켜 칼빈신학의 혼돈만을 일삼게 되었다.

66) Ibid., pp. 15~16.

“De aeterna Praedestinatione Dei”는 1552년 존 크리스핀(John Crispin)에 의해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이보다 앞서 먼저 펴기우스에 의해 주장된 “자유의지(Free Will)”를 반박하기 위하여 1543년에 “De libero Arbitrio(자유의지에 관하여)”가 출판되었다. 그러나 예정론 논쟁은 수그러들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당시에 개신교 의사였던 제롬 볼섹(Jerome Bolsec)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칼빈의 “예정교리”를 크게 반대하였다. 이에 칼빈은 “예정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51년 10월에 볼섹을 제네바 시의회(the Genevan City Council)에 고소하였다.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볼섹은 이단으

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제일로 하는 것을 잊어 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를 그의 영광의 무대(舞臺)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⁶⁷⁾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은 결단코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원을 말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한데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루었다고 칼빈의 예정을 구원론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바빙크와 벌콕은 예정을 신론에서 다루는데,⁶⁸⁾ 본인은 개인적으로 바빙크와 벌콕프가 예정을 신론에서 다룬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예정과 작정은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구원론에서 다루면 그리스도 안에서(ἐν τῷ χριστῷ)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에 Barthism에 동조하기 쉽고 예정과

로 정죄하고 추방하였다. 그러나 불색만이 “예정론”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여러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실리 출신의 게오르기우스(Georgius)가 있었고, 또한 여전히 피기우스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 있음을 칼빈은 알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칼빈은 1543년에 “De aeterna Praedestinatione Dei”을 저술하게 되었다.

67)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lated by Henry Cole, (Grandville, MI :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 p. 86.

“What, then, is to become of all those testimonies of the Scripture which make the glory of God to be the highest object and ultimate end of man's salvation? Wherefore, let us hold fast this glorious truth—that the mind of God, in our salvation was such as not to forget Himself, but to set His own glory in the first and highest place; and that He made the whole world for the very end that it might be a stupendous theatre whereon to manifest His own glory.”

68)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deel 2, pp. 301~69.

벌콕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p. 301~29.

작정을 여하튼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칼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앞에서 이미 주장했듯이 칼빈의 계속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 “바울이, 우리는 ‘창세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에, 바울은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피기우스의 「예지예정」을 강력히 반대하는데 예정과 예지에 있어서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⁶⁹⁾은 여러가지 잡다한 반대 의견으로 예정설을 모호하게 하지만 칼빈은 예정과 예지를 둘다 하나님 안에 두고 있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⁷⁰⁾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게 예정을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도르트회의에서 역시 알미니안이 주장한 「예지예정(fides previsa)」을 단호히 거절하는데 이것은 Pighius가 이미 주장한 「예지예정(fides previsa)」을 칼빈이 거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⁷¹⁾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인용하면서 “예지예정”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계속해서 칼빈은 “만일 우리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된다”⁷²⁾고 말한다. 또한 칼빈은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豫知하셨기에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 아

69) “강요”, p. 507. Pighius, De libero arbitrio.

70) Ibid., p. 507.

71) Ibid., p. 507.

72) Ibid., p. 518.

니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었다고 나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크게 외치기를 거룩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시작은 선택의 결실이고 선택의 효과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선택을 믿음 후에 놓는 자들은 가장 터무니 없는 (preposterously, 앞뒤가 뒤박인) 행동인 것이다.”⁷³⁾ 이는 에베소서 2:8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 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예지예정」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예지예정」을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전에 있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코 용납이 안되는 말로써 하나님위에 무엇인가를 두려는 신성모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다. 또한 칼빈은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긍휼과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확고히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주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자신의 긍휼에

73)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lated by Henry Cole, p. 45.

“Paul does not (as Augustine wisely observes) declare that the children of God were 'chose,' because He foreknew they would believe, but in order that they might believe. Nor does the apostle (says he) call them 'chose,' because God had foreseen that they would be holy and without spot, but in order that they might be made such.” Again, “God did not (says he) choose us because we believed, but in order that we might believe, lest we should appear to have first chosen Him. Paul loudly declares that our very beginning to be holy is the fruit and effect of election. They act most preposterously, therefore, who put election after faith.”

서만 취하신다고 하는 것이(롬 9:15) 주의 분명한 선언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의 구원은 오로지 주 자신이 하시는 일이다.⁷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시기도 하고 강퍽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⁷⁵⁾라고 말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그 원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⁷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빚(debt)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칼빈은 이중예정, 즉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트살크의 문제로 반기를 들었던 프루덴티우스(Prudentius), 레미기우스(Remigius), 라트람누스(Ratranus), 루푸스(Lupus) 등에 의하여 이미 주장되었던 것으로 발렌스 공의회(the Synod of Valence, 855)에서 채택되었던 것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칼빈의 말을 직접 살펴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는 듯이 선택을 용인하면서도 누군가 정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무지하고 유치한 것이다. 버림과 대조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신다고 말하면서, 선택만이 소수에게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신다⁷⁷⁾”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고한 자들을 회심시키시지 않는 것은 더욱 강력한 은혜를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니다⁷⁸⁾”라고 말한다.

74) “강요”, p. 523.

75) Ibid., p. 534.

76) Ibid., p. 538.

77) Ibid., p. 535.

그러나 칼빈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악의 기원도 예정의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각주 52에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인간의 창조의 제1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제2목적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을 창조한 제3 목적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잠언 16장: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제3의 목적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⁷⁹⁾

그리고 칼빈은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타락전 선택」을 주장을 하는데 칼빈은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識別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心中에 있었다고 필연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기도 선택과 같은 원리로써 유기자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유기자들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파멸로 정해졌기 때문이다.⁸⁰⁾

78) Ibid., p. 537.

79) Calvin, Calvin's Calvinism, p. 90.

존 칼빈,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1), pp. 376~77.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들의 첫 그리고 최고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복종케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죄의 원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악의 저자이거나 잘못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Tametsi Dei voluntas summa et primum est rerum omnium causa, et Deus diabolum et impios omnes suo arbitrio subiectos habet, Deus tamen neque peccati causa vocari potest, neque mali autor, neque ulli culpae obnoxius est. Co IX, pp. 713~4).

80) Ibid.

“The third end of man's creation which is so clearly and powerfully expressed by Solomon, ‘The Lord hath made all things for Himself, even the wicked for the day of evil’ (Pro. xvi. 4), Pighius attack in this way. With reference to God's condemnation of the reprobate and His punishment of sin, he argues, ‘If we say that God in His eternal decrees had any respect to what would happen to each person after his creation, we must necessarily confess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elect and the reprobate was, in

그리고 강요에서도 칼빈은 확실히 「타락전 선택」을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⁸¹⁾ 여기서 선택과 유기의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후에 고마루스와 웨스터민스터회의의 결정문서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또 강요 23장 7절에서 악과 죄의 기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두고 있으며 8절에서는 유기를 설명하면서도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안에 있다. 첫 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⁸²⁾라고 말함으로써 유기의 원인을 아담의 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칼빈은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전 선택」을 여러곳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칼빈의 예정론에 관하여 짧고 명료하게 정리한 고백조항⁸³⁾에서도 「타락전 선택」의 성격

the Divine mind, antecedent to the Fall of man. Whence it will follow that the reprobate are not condemned because they were ruined in Adam, but because they were already devoted to destruction even before the Fall of Adam.’ ”

81) “강요”, p. 500.

82) Ibid., p. 547.

83) CO IX, pp. 713~4.

이 글은 김영규교수가 “17세기 개혁신학”, pp. 114~5에서 해석한 것을 全文 인용한 것임.

Ⓐ Ante creatum primum hominem statuerat Deus aeterno consilio quid de toto genere humano fieri vellet.

Ⓑ Hoc arcano Dei consilio factum est ut Adam ab integro naturae suae statu deficeret ac sua defectione traheret omnes suos posteros in reatum aeternae mortis.

Ⓒ Ab hoc eodem decreto pendet discrimen inter electos et reprobos: quia alios sibi adoptavit in salutem, alios aeterno exitio destinavit.

Ⓓ Tametsi iustae Dei vindictae vasa sunt reprobi, rursus electi vasa misericordiae, causa tamen discriminis non alia in Deo quaerenda est quam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에게 전수되어 지는데 칼빈의 글이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 첫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전인류 (genere humano)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느지를 정하셨다.

㉡ 이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논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신의 순수한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였고 그의 결함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죽음의 진노 가운데로 몰았다.

㉢ 택자들과 유기자들 사이의 구별은 같은 성정(eodem decreto)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mera eius voluntas, quae summa est iustitiae regula.

㉣ Tametsi electi fide percipiunt adoptionis gratiam, non tamen pendet electio a fide sed tempore et ordine prior est.

㉤ Sicut initium et perseverantia fidei a gratuita Dei electione fluit, ita non alii vere illuminantur in fidem, nec alii spiritu regenerationis donantur, nisi quos Deus elegit: reprobos vero vel in sua caecitate manere necesse est, vel excidere a parte fidei, si qua in illis fuerit.

㉥ Tametsi in Christo eligimur, ordine illud prius est ut nos Dominus in suis censeat, quam ut faciat Christi membra.

㉦ Tametsi Dei voluntas summa et primum est rerum omnium causa, et Deus diabolum et impios omnes suo arbitrio subiectos habet, Deus tamen neque peccati causa vocari potest, neque mali autor, neque ulli culpae obnoxius est.

㉧ Tametsi Deo peccato vere infensus est et damnat quicquid est iniustitiae in hominibus, quia illi displicet, non tamen nuda eius permissione tantum, sed nutu quoque et arcana decreto gubernantur omnia hominum facta.

㉨ Tametsi diabolus et reprobis Dei ministri sunt et organa, et arcana eius iudicia exsequuntur, Deus tamen incomprehensibili modo sic in illis et per illos operatur ut nihil ex eorum vitio labis contrahat, quia illorum malitia iuste recteque utitur in bonum finem, licet modus saepe nobis sit absconditus.

㉩ Incite vel calumniose faciunt qui Deum fieri dicunt autorem peccati, si omnia eo volente et ordinante fiant: quia inter manifestam hominum pravitatem et arcana Dei iudicia non disinguunt.

㉓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의 그릇은 유기자들이고 반면 택자들은 긍휼의 그릇일지라도, 구별의 원인은 의의 최고 규범인 자신의 유일한 의지 이외에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다.

㉔ 비록 택자들이 믿음으로 채택의 은혜를 받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시기와 순서에 있어서 그것에 선행한 것이다.

㉕ 믿음의 시초와 보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부터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외에 다른 자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조명받거나 중생의 영을 받지 못한다. 유기자들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신의 눈이 멀음 가운데 머무르거나, 그들 안에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㉖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순서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들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는 일보다 앞선다.

㉗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들의 첫 그리고 최고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복종케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죄의 원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악의 저자이거나 잘못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㉘ 비록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인간들 안에 있는 불의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불쾌해 하시기 때문에 진노 하실지라도, 그의 순수한 허락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역시 뜻과 신비한 성정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

㉙ 비록 마귀와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배역자들이고 도구들이며 그의 신비한 심판으로 종결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것도 그들의 타락의 부패성으로부터 축소되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그 방식은 종종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악이 선한 목적에 바르고 정당하게 그리고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㉚ 모든 것들이 그의 원함과 질서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하나님이 죄의 저

자라고 말하는 자는 미련하고 중상하는 일이다. 이는 그들이 인간의 명백한 부패와 하나님의 신비한 심판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칼빈은 「타락전 선택」을 확고히 주장하였는데 그의 고백 조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특히 이와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의논(Deus aeterno consilio)에 있어서 전 인류(genere humano)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칼빈이 타락전 선택자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VI. 도르트회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논의된 예정론

도르트회의의 결정은 자유의지를 부정했다가 아니라 바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의지인가? 인간의 창조목적은 인간스스로 버리고 자신의 의지에 충실하여 살아가는것이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지인가? 도르트회의의 결정은 세상에서 통용하는 세상기준으로써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자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분명히 앞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창조자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는 종속되어 있고, 창조자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보다 선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가 있기에 은혜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1. 선택과 유기의 시기와 관련하여

도르트회의의 결정문서 7번째 조항을 보면은 “선택은 이 세계의 기초전에(voor de grondlegging der wereld,)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미리 취하신 것이다”⁸⁴⁾라고 적고 있다. 결정문에서 분명히 선택의 시기와 관련하여 세상의 기초전을 말하고 있으므로 예정은 창조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의 시기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선택에 비중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도르트회의에서 신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는

84) ACTA, p. 257.

“Deze verkiezing is een onveranderlijk voornemen Gods, door 'twelk Hij, voor de grondlegging der wereld, een zekere menigte van menschen.”

목적으로 쓴 합의된 첫 번째 조항에서 기록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나에게 주시기로 계시한 사람들을 취한다(요 17:6).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으므로 信者들은 끝까지 믿는다(행 13:48),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전(eer der werellds grond)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엡 1:4) 기타 등등”⁸⁵⁾ 이는 엡 1:4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성경은 어떤 확실한 사람들을 영원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인데 여기서 분명히 시기와 관련하여 영원전에 그리고 세상의 기초전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 신학자들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첫번째 의견에서 선택의 시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미리 이루어진 도모에 의해서 죽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들을 그의 영적인 몸 안에 자신과의 강한 결합으로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자들을 결국 성령의 인도와 살아있는 통치에 의하여 영접하여 보존하시고 증진하시며 완전케하시고, 동일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탈하지 않게 하신다(사 56:22 ; 빌 롬 8:29 ; 빌 1:16 ; 살후 2:17 ; 고전 1:7 ; 살전 3:12 ; 렘 24:6 ; 사 6:13 ; 딤후 2:18 ; 눅 22:31 ; 요 17:12 ; 요 10:17 ; 요 6:39 ; 롬 8:33 ; 요일 3:9 ; 요 8:35 ; 요 14:16 ; 렘 31:33 ; 렘 32:40)”⁸⁶⁾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기의 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다.

브레멘 신학자들은 첫 번째 조항인 예정에 대하여 “신적인 선택의 결정은 영원전부터 세상의 기초전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의 유일한 기뻐하심으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85) Ibid., p. 260.

“gelijk geschreven is, Jon. 17:6, Ik heb nwen naam den menschen geopenbaard, die Gij Mij van de wereld gegeven hebt. Hand. 13:48, En daar geloofden zoo velen als er ten leven verordineerd waren. Ef. 1:4, En Hij heeft ons verkoren, eer der werellds grond gelegd was, opdat wij zouden heilig wezen, enz.”

86)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90.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선택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하며 전적으로 유일한 결정이다(엡 1:4 ; 딤후 1:9 ; 엡 1:6 ; 롬 9:23 ; 엡 1:7 ; 출 33:19 ; 롬 9:15,16 ; 롬 8:29,30 ; 딤후 1:9 ; 엡 1:4,5)⁸⁷⁾라고 선택의 시기를 세상의 창조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기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영원전에 유기를 했다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의 의와 그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영원전에 인류 중에 타락한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공활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와 진노 가운데 내버리시고 진노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브레멘 신학자들은 유기의 시기도 또한 영원전으로 주장했다.

도르트회의의 참석한 자들은 모두다 세상 창조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다 창조 이전에 예정하였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르트 회의에 참석한 개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알미니안과 항론파도 역시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창조전에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알미니안은 하나님은 소지하시고豫知하시기에 미리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안믿을 것인지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예지 예정(fides praevisa)」을 주장한다. 따라서 예정의 대상은 타락한 인간(homo lapsus), 창조해야할 인간(homo condendus), 창조된 인간(homo conditus, homo creatus)이 아니라, 믿을 사람(homo fidelis)이라는 것이다.⁸⁸⁾ 즉 선택이란 믿음을 조건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알미니안도 예정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는 창조전에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서에서도 예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영원전부터(ab omni aeterno)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자신의 뜻의 계획으로, 무엇이든지 되어질 것을 자유롭게 변치 않도록 작정을 하시었다(요 1:10, 롬 11:33, 히 6:17, 롬

87) Ibid., p. 91.

88)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49.

9:15,18)⁸⁹⁾라고 고백하는데 웨스터민스터회의에서도 역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도르트회의에서처럼 웨스터민스터회의 또한 유기의 시기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선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혁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알미니안까지도 시기와 관련하여 “창조전”에 혹은 “영원으로부터”라는 의견에 일치한다.

그러므로 선택의 시기를 가지고는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이 구별이 안된다. 그것은 알미니안도 창조전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가 알미니안과 구별되는 점을 선택의 시기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엄밀하게 예정의 대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선택의 시기를 밝히 계시한다. “곧 창세 전(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πρὸ χρόνων αἰώνω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2. 선택과 유기의 대상과 관련하여

도르트회의의 결정은 선택의 대상과 관련하여 그 수는 분명히 제한을 하여도 인간편에서의 대상의 조건은 말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자발적이시고 기쁘신 의지에 의하여 창조해야 할 자(creandus homo)를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롬 9:15-16). 여기에는 인간 심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유기에 대하여는 그 대상을 타락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기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돌렸다. 그러면 나라별로 파송한 신학자들의

89)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최병섭 엮음, (서울 : 도서출판 신성, 1996), p. 455.

의견을 살펴보겠다.

선택의 대상과 관련하여 도르트회의 결정문서 6번째 조항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때에 어떤 사람들(sommigen, manche)에게 믿음(geloof)을 선물로 주고, 어떤 사람들(sommigen, manche)에게는 그것을 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으로부터 계속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의 사역들은 영원한 그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행 15:18).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의지대로 행하신다.”(엡1:11)⁹⁰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문건에서 보는 바와같이 “어떤 사람들”을 예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sommigen(manche)직역을 하자면 단지 많은 수를 가리킨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수를 유기하셨다. 도르트회의 결정은 「타락후 선택」인데 이 결정문서에서는 타락전이나 타락후라는 어떤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허락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팔츠의 신학자들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첫 번째 조항에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타락한 인류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도록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시며 그를 믿는 신앙을 선물하시고 역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양을 위해서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은혜와 영광에 이르는 예정의 전 결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팔츠의 신학자들은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한 인류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타락후 선택”을 주장했다. 이들은 유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데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버려져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시사 그의 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였던 하나님의

90) Ibid., p. 257.

“Dat God sommigen in den tijt met het geloof begaaft, sommigen niet begaaft, komt voort van zijn eeuwig besluit. Want al zijne werken zijn Hem van eeuwigheid aan bekend, Hand. 15:8. En Hij doet alle dingen naar den raad zijns wils, Ef. 1:11.”

뜻이 죽음에 이르는 유기의 全決定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⁹¹⁾

헤센의 신학자들 역시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그 수가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확실히 정한 사람들을 그의 뜻과 자비로우신 성향에 따라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스스로 긍휼히 여기시고 같은 이들을 스스로 던져진 일반적인 곤비로부터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마 20:16, 22:14 ; 눅 10:20 ; 빌 4:3 ; 계 21:27, 7:4 ; 요 10:3, 13:18 ; 딤후 2:19)”라고 선택의 대상을 타락한 인간들로 보고 있다. 유기에 대하여서도 “시간상 타락한 인류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곤비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신앙과 회심, 확신까지 얻도록 하는 필요한 수단들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히 죄 가운데 그들을 저주하시니,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의지에 따라서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여 유기에 대한 대상 역시 헤센의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

브레멘 신학자들은 “신적인 선택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긍휼과 영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전인류의 부패된 자들 중에서 확실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자들을 그의 은혜의 교통을 위해서 능력으로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했다”라고 언급하므로 이들 역시 타락후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적용한다. “영원전에 인류 중에 타락한 어떤 이들을”라고 브레멘 신학자들은 유기의 대상도 역시 타락후 유기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란 신학자들인 Johannes Polyander, Antonius Thysius, Antonius Walleus의 공통된 입장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예정은 주께서 은혜로우신 그의 뜻의 기뻐하심에 따라(엡 1:5,11 ; 롬 11:5) 전인류로부터 죄로 타락하여 이렇게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들을(롬 9:15,16)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던 영원하고(엡 1:4 ; 마 25:34) 완전 자유롭고(롬 9:15 ; 엡 1:5,11) 불변의(롬 9:11 ; 롬

91)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66.

11:28,29)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주장하여 화란의 신학자들 역시 타락 후 선택자들이었다. 유기에 대해서도 이들은 타락후 유기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기는 하나님의 전혀 자유롭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결정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주께서 죄가운데 타락한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VII. 고마루스

1. 고마루스의 활동

예정론 논쟁의 최고의 정점으로 우리는 도르트회의(1618, 11~1619, 5)⁹²⁾를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칼빈주의 반대로 알미니안(Jacobus Arminius, 1560~1609) 또는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를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알미니안이 도르트 회의에서 등장한 인물이고 또 그 회의에서 정죄된 인물이기에 예정론에 있어서 칼빈주의 최대의 적으로서看過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에 화란에서는 1575년에 설립한 라이덴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화란 최고의 대학이었다.⁹³⁾ 이러한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던 알미니안과 첨예하게 논쟁을 벌인 인물이 바로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인데, 교회에서부터 발생한 논쟁은 라이덴 대학의 입장을 우선 공개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되었다.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서 고마루스와 알미니우스는 서로의 신학적 입장이 달랐으므로 대학에서부터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고 라이덴 대학의 대외적 신학 노선이 무엇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논쟁은 고마루스와 알미니우스를 후에 국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서 반항론파(Contraremonstranten)와 항론파(Remonstranten)로 분류하였다.⁹⁴⁾

92) 유스토 L. 곤잘레스, “종교 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 은성출판사, 1989), p. 282.

김광채, “近代 現代教會史”,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p. 97.

93) 김광채, “近代 現代教會史”, p. 89.

94) J.H. Donner en van S.A. Den Hoorn,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LE SYNODE TE DORDRECHT TEN JARE 1618 EN 1619, (Te Leiden Bij D. Donner, 1669), p. 32.

프란시스 고마루스는 Brugge에서 출생하였고, Straatsburg에서는 Joh. Sturm의 문하생으로, Neustadt에서는 유니시우스(Junius), 우르시우스(Ursinus), 잔키우스(Zanchius) 그리고 토사누스(Tossanus)의 문하생으로 수업하였고, 옥스포드(Oxford)와 캠브리지(Cambridge)에서도 수업하였다. 그는 1594년 3월 14일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라이덴에 교수로 임명되어서 1594년 6월 18일에 하나님의 계약(verbond van God)에 관한 연설로 취임을 하였다.⁹⁵⁾ 그리고 후에 차례로 미델부르그(Middelburg)와 소무르(Saumur)에서 교수가 되었고, 마침내 1681년에는 흐로링엔(Gronigen)에 정착하기 위하여 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⁹⁶⁾

고마루스는 도르트회의의 기간내내 마르티니우스(M. Martinius)와 카를레톤(G. Carleton)과 함께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과 논쟁하였고 특히 고마루스는 알미니안의 입장을 가장 집요하고 강력하게 논박한 최고의 인물로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⁹⁷⁾ 이러한 이유로 고마루스가 도르트회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데에는 그가 열정적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알미니안과 맞서 싸운 것도 하나의 귀한 일이라 하겠으나 더욱 귀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주장한 예정론의 내용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고마루스는 예정론에 대한 입장을 보이면 “주님 앞에 신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하여야 하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정은 보편적으로 모든 만물에게 미치고 특별히 지적피조물 즉 천사와 인간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예정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인간들을 택하셨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정의 대상(objectum praedestinationis)에 대한 문제에서 고마루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확히 예지되고 창조되어 타락한

김종교, “도르트 회의 豫定論 論爭이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에 끼친 影響 考察”,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년 졸업논문), pp. 14~15. 참조.

95) Ibid.

96) Ibid., p. 85.

97) Ibid.

인간, 혹은 창조되고 타락하게 될 인간을 그 예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명확히 예지되지 않은 인간 혹은 좁게 창조될 수 있었던 인간을 예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⁹⁸⁾

여기서 고마루스는 예정의 대상이 우선 모든 만물임을 밝히고 있고, 다음으로 지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즉 모든 피조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예정의 결과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관을 잘 드러내고 있고 또한 사람만을 예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천사도 사람과 함께 예정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예정에 있어서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예지되지 않은 인간과 타락하게 될 인간이 아니고, 창조될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고마루스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는 예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형벌이 예비된 사람, 창조될 사람, 타락할 수 있고 또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⁹⁹⁾ 여기서 분명히 고마루스는 「타락전 선택」을 확고히 함으로써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한 타락전 선택자임을 알 수 있다.

2. 도르트회의(ACTA를 중심으로)에서 주장한 고마루스의 예정론

도르트회의 기간중에 화란의 신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고마루스가 그 중에서도 특히 개혁주의 엄밀성을 더욱 잘 제시하고 있다. Johannes Polyander, Antonius Thysius, Antonius Walleus는 같은

98)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34.

G. P. van Itterzon, “Franciscus Cormarus”, (Groningen, 1979), p. 310.

99) Ibid., p. 35.

“Gomarus sprak in zijn beschouwingen niet over de gevallen mens als voorwerp van de predestinatie maar over de mens, die gered veroordeeld, geschapen kon worden, die kon vallen en ook kon verlost worden.”

입장으로 발제하였고 거기에 Sibrandus Lubbertus가 그들의 발제문에 서명하였으나,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Sibrandus Lubbertus의 독립적인 발제에 대해서 Johannes Polyander, Antonius Thysius, Antonius Walleus가 그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으나 고마루스의 의견은 ACTA에 실리지 않아서 고마루스의 의견을 알 수가 없고, 다만 그의 발제 전문만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실려 있으므로 본인은 ACTA를 중심으로 고마루스의 첫 번째 조항인 선택과 유기만을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조항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데 첫 번째 조항은 고마루스의 독립적 입장이므로 다른 이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¹⁰⁰⁾ 이러한 이유로 고마루스의 독립된 입장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워 생각해 보겠다.

(1) 인간의 일반적인 예정에 대하여(VAN DE ALGEMEENE PRAEDESTINATIE DER MENSCHEN)

ACTA에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예정」과 관련해서는 항론파와 대립되는 고마루스의 글이 각각 5조항으로 서로 구분되어 실려 있다.¹⁰¹⁾ 그 첫째 조항을 보면 고마루스는 “예정(선택과 유기를 포함)은 두 가지가 아니라 단일한 예정이다”¹⁰²⁾라고 한다. 이것은 개혁주의에서 말한 예정은 하나의 성정에 기인하는 것이란 고백과 일치한다. 그러나 항론파는 이것과 다르게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을 단일한 예정으로 보지 않고 두

100) Ibid., p. 102.

101) J.H. Donner en van S.A. Den Hoorn,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LE SYNODE TE DORDRECHT TEN JARE 1618 EN 1619, (Te Leiden Bij D. Donner, 1669), pp. 615~616. 이후부터는 “ACTA”라고 하겠음.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108.

102) ACTA, pp. 615~6.

“De praedestinatie(dewelke de verkiezing en verwerping bevat) is niet tweëerlei, maar eene eenige praedestintie.”

종류로 보고 있다.¹⁰³⁾ 개혁주의자들은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하고 있고 이 작정은 예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으로써 작정 안에는 모든 피조물과 관련하여 말한것이라면 예정은 특히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좁고 특별한 작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고마루스는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을 칼빈이 말한대로 “같은 성정(eodem decreto)”에 있다고 주장하여 칼빈의 주장에 일치하는 반면에 알미니안은 다른 성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중예정과는 다른것으로써 이중 작정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조항에서는 고마루스는 “주께서 신자들은 구원하고 불신자들은 멸주기로 결심한 것에서 비롯된 일반적 또는 보편적인 신적 결정은 구원과 영벌에 이르는 예정이 아니다”¹⁰⁴⁾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 차원에서 믿는자들은 구원을 하고 불신자들을 영벌을 주는 보편적인 주님의 결심이 신자는 구원으로 불신자는 영벌로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이것은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고마루스는 구원을 보편적인 차원이 아닌 특별한 차원의 신적 작정으로 끌고 간다.¹⁰⁵⁾ 이에 반하여 항론파는 “우선적으로 주께서 결심한 것에서 비롯된 일반적 또는 보편적인 신적 결정은 믿는자들은 구원하고 불신자들은 멸주기위한 것이다.”¹⁰⁶⁾ 여기서 항론파는 인간의 구원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믿

103) Ibid.

De praedestinatie(dewelke de verkiezing en verwerping bevat) is niet eene eenige praedestintie, maar is tweëerlei.”

104) Ibid., p. 616.

“Het generale of algemeene Goddelijke besluit, door hetwelk Hij besloten heeft de geloovigen zalig te maken, en de ongeloovigen te verdoemen, is de preadestinatie niet ter zaligheid en ter verdoemenis.”

105)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신적 결정은 인본은총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2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특별한 예정은 특별은총의 성격이 있다.

106) Ibid.

“De eerste is een general of algemeen Goddelijk besluit, door hetwelk Hij besloten heeft, de geloovigen zalig te maken, en de ongeloovigen te verdoemen.”

는자들은 구원을 하고 불신자들은 영벌을 내리는 보편적인 차원의 하나님
님의 결심을 말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특별한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나머지 구원의 비밀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인간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
로써 예정을 말하고 있다.

세번째 조항에서 고마루스는 “이것(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예정)은 예
정의 온전하고 완전한 결정이 아니다. 모든자가 믿고 보존되고 그래서 아
무도 정죄되지 않거나, 혹은 모든자가 불신앙하고 정죄되어서 아무도 구
원받는 자가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이것의 진리성은 증명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것보다는 온전한 예정(선택과 유기가 함께 구
성된)이 논쟁되고 있다”¹⁰⁷⁾라고 말하는 반면에 항론파는 “이것이 온전하
고 완전한 결정의 예정이다”¹⁰⁸⁾라고 말한다.

네 번째 조항에서 고마루스는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결정(보
편적 결정)은 기독교, 구속(zaligheid-구원) 그리고 구속의 확신의 유일한
기초가 아니다. 반면에 구속의 첫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선택
이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속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주신 것의 기초가 된다.(롬 8:29, 30 ; 요 3:16,
6:37 ; 행 13:48)”¹⁰⁹⁾고 주장했다. 특히 이 네 번째 조항이 중요한데 여기

107) Ibid.

“Dit is niet het gansche en geheele besluit der praedestinatie. Want de
waarheid dezes kan blijken, indien het of geschiedt, dat ze allen geloofden en
behouden werden, zoodat niemand verdoemd werd, of dat ze allen ongeloovig
werden en verdoemd, zoodat er niemand zalig werd, hetwelk ganschelijk
tegen de geheele praedestinatie (dewelke samen uit de verkiezing en
verwerping betaat) is strijdende.”

108) Ibid.

“Dit is het gansche en geheele besluit der praedestinatie.”

109) Ibid.

“Het besluit van de geloovigen zalig te maken, is niet het eenige fundament
van het Christendom, van de zaligheid, en van de zekerheid der zaligheid;
maar het eerste fundament der zaligheid is de genadige liefde en verkiezing
Gods; dewelk de oorzaak is en het fundament niet alleen van de zaligheid,

서 고마루스는 신자들의 구속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구주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그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정에 근거한다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다. 고마루스는 여기서 칼빈과 같이 구원의 순서(ordō salutis)까지도 예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항론파는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결정(보편적 결정)은 단지 기독교와 구속 그리고 구속의 확신의 기초이다”¹¹⁰⁾라고 말한다. 여기서 또 한번 항론파는 여기서 신인협동설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결국 기독교와 구원의 확신을 믿는 인간의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론파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예정을 인간의 수준으로 한 차원 낮추어서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보다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다섯째로 고마루스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더 한 진리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 같이 동일하게 좋은 구별과 함께 다음 설명에서 나타나야 한다”¹¹¹⁾라고 언급한다. 고마루스는 보편적인 예정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나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예정은 특별한 예정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항론파는 특별한 차원에서 이러한 예정을 다루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루려 한다. 같은 예정을 말하면서도 엄밀하게 구별하여야 하는데 항론파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기인한다고 보기 보다는 믿을 사람(신자)과 안믿을 사람(불신자)을 구분하고 믿을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안믿을 사람은 죽음과

maar ook van de schenking des Zaligmakers, Christus, en des geloofs in Hem. Rom. 8:29, 30 ; Joh. 3:16, 6:37 ; Hand. 13:48.”

110) Ibid.

“Het besluit van de geloovigen zalig te maken is alleen het fundament van het Christendom, van de zaligheid en van de zekerheid der zaligheid.”

111) Ibid.

“Daar is wel eene bijzondere praedestinatie, maar dezelve moet met meerdere waarheid op eene andere wijze beschreven worden, gelijk zulks uit de navolgende verklaring met goed onderscheid zal blijken.”

멸망으로 예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 사람의 공로와 죄로 돌려지는 인간학에 근거를 두고서 예정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항론파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두 번째 예정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은 멸망시키기로 미리 결정함에 따라 주께서 결정하신 것에서 비롯된 독특하고 특별한 신적인 결정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 신자라고 일컫는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불신자들로 일컫는 저들 또는 믿지 않을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형벌을 정하셨다.”¹¹²⁾

(2) 특별한 예정 혹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VAN DE BIZONDERE PRAEDESTINATIE, OF VERKIEZING DER MENSCHEN TER ZALIGHEID)¹¹³⁾

112) Ibid.

“De tweede praedestinatie is een speciaal of een bijzonder Goddelijk besluit, door hetwelk Hij besloten heeft, naar het voorgaande besluit, dezen zalig te maken, en die te verderven; dat is dezen, aangemerkt als geloovigen, tot het eeuwige leven te verordineeren en die, aangemerkt als ongeloovigen, of die niet gelooven willen, tot den eeuwigen dood en het verderf te veroordeelen.”

113) Ibid., pp. 617~20.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김영규 교수 강의안인 “17세기”에서 전적으로 인용하였음.

그러나 김영규교수의 강의안에서는 14, 15, 16번의 순서를 바꾸어 기재하였고 김종교 학우는 이 사실을 확인못하고 그대로 김영규 교수의 순서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본 논고에서는 ACTA의 순서를 따라서 기재했음.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108~12.

김종교, “도르트 회의 豫定論 論爭이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에 끼친 影響 考察”, p 32. 참조

1.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특별한 예정외에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2.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예정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고 그 자체가 역시 절대 자유롭고 참되고 은혜로우신 주의 기뻐하심에 따라(살후 2:13 ; 롬 8:28, 29, 30 ; 빌 2:13)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온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능력있게 역사하고 있는) 영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3. 그 예정은 구원과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위한 것이다(살후 2:13 ; 롬 8:28, 29, 30).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구주

로 선물하신 은혜(요 3:16 ; 뵤전 1:20 ; 요일 4:10), 소명(롬 8:28, 30)과 신앙(행 13:41 ; 살후 2:13 ; 빌 1:29 ; 2:13), 칭의(롬 8:40)와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화(롬 8:29), 성화(엡 1:14), 양자로 삼으심(엡 1:15)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존(요 6:29 ; 10:28, 29)의 은혜를 위한 것이다. 예정이 구원을 위한 것보다 적지않게 그 은혜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4.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두 가지 다 신앙의 보상이요(딤후 4:8) 역시 목적이요(뵤전 1:8). 이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까지 신앙이 미치는 지극히 높은 선(het opperste goed)이기 때문이다(살후 2:13 ; 요 20:3 ; 행 26:18).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선물하시는 은혜, 소명, 양자로 삼음, 견인의 은혜는 어떤 수단으로서 구원 자체에 선행한다. 이를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서정에 있어서(in orde) 구원에 이르는 예정 이후에 뒤따르는 것이다.

6. 이는 신앙과 그와같은 순종, 그 안에서의 견인은 택함을 받을 자들 안에 있는 선택을 위해서 미리 예견된 어떤 조건이 아니요, 역시 그것 없이 그런 일이 없는 원인이 결코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고유한 역사이기 때문이다(행 13:48 ; 롬 8:30 ; 살후 2:13 ; 뵤전 1:2). 그렇지않고 우리의 사랑과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요일 4:10 ; 롬 9:16, 5:8, 10).

7. 신앙의 그 은혜는 택자들에게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졌을 뿐이고, 어떤 유기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요 10:26, 27, 6:44 ; 딤편 1:1 ; 살후 3:2).

8. 그리고 한 번 주어진 택자들의 신앙은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때문에 그들 안에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비록 어떤 때에 그것이 적어지거나 커질지라도, 그 자체가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진리가 아니다(요 10:28, 29 ; 뵤전 1:5 ; 마 24:24 ; 롬 8:30, 39).

9.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 택함을 받은 어떤 이가 이 생에서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고 버림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을 수 없다(마 24:24 ; 롬 8:30, 33, 35, 39).

10. 그로부터 얻은 결과는 진리의 불변의 본성과 영원한 신적인 의논에 의하면 궁극적인 선택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사 46:3, 10 ; 약 1:17).

11. 이런 선택의 추진 또는 움직이는 원인은 오직 전적으로 자유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 밖에 어떤 것도 아니다. 특별히 더구나 그와 같이 구원을 인간의 선택아래 정해진 어떤 수단이라 한다. 그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후속적인 역사이다.

12. 신자들은 이 생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선택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들이 견인하는 한 이런 조건 아래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인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ACTA에서 「특별한 선택 또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 18개 조항의 고마루스의 글을 남기고 있다. 물론 항론파의 글도 동하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견인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으로부터(렘 32:40 ; 요 4:14, 6:37, 39, 59, 58, 10:28, 29), 그리고 역시 택자들에게 고유한 신앙의 특별한 느낌으로부터(딤후 1:1 ; 살후 3:2),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한 인치심으로서(엡 1:13, 14, 30)의 성령의 증거로부터(롬 8:13), 그리고 진지한 기쁨과 선행들과 믿음과 사랑의 성찰로부터(벧후 1:10) 확신하기 때문이다.

13. 선택에 대한 절대적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크게 유익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신자들을 일깨워, 그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선택의 이런 자비롭고 말 할 수 없는 은택에 대해서, 동등하게 다시 합당한 감사로 사랑하고 부르시며 영화롭게 하고, 그들 스스로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요(살후 2:13, 14 ; 엡 1:4, 5, 4:1 ; 벧전 2:9 ; 빌 3:14) 그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데 이것으로 지지받는 것이며(롬 8:17, 18, 35 ; 고후 4:18) 더 넓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경건하고 확고하게(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항존적인 대적들로서) 사탄과 세상과 육체와 싸우기 때문이요(딤후 4:7, 8)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확고한 위로를 받고, 영생의 어떤 전주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런 느낌에서 거룩하게 안식하고 스스로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롬 8:33, 38, 39, 5:23).

1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자들과 참된 신자들인 그런 자들의 어린아이들은 말을 사용하기 전에 죽었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된다'(창 17장 ; 행 2:39)는 언약의 형식(het formulier des verbondeds)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들도 함께 택함을 받았음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사용하기에 이르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만이 택자들임을 고백 한다. 이는 이들만이 복음에 따라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15. 궁극적이지 아니한 예정이란 성경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고 불변의 예정의 본성에 충돌되는 것이다.

16. 궁극적이지 아니한 예정이란 없기 때문에, 역시 그와같은 것에 대한 어떤 구분도 없다.

17. 성경은 어떤 일반적 소명을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구별하고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예정도 소명의 일반적인 결정 속에 결코 표현되지 않는다(마 22:40).

18. 보존되지 않은 참된 신자들에게만 미치는, 구원에 대한 궁극적이지 아니한 예정은 없다. 이는 역시 보존되지 않은 참된 신자들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이지 아니하는, 구원에 이르는 예정이란 없다.

18개의 문장이 들어있다. 고마루스는 1, 2번째 조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예정은 인간의 유일하고 특별한 예정이외에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¹¹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외에 그 밖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항론파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예정을 두 종류라고 말하고 있다.¹¹⁵⁾ 그리고 고마루스는 구원에 이르는 예정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절대적이고 참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한다. 여기서 고마루스는 예정을 하나님의 뜻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기쁘신 뜻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만 예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적 사실이기에 고마루스는 예정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못박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한 차원 높여 고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계속해서 그는 선택의 대상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온 인류 중(gansche menschelijk)에서 어떤 사람들(zekere mensen)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인류의 성격이 이미 타락한 인류인지 앞으로 타락할 인류인지, 아니면 타락전 상태의 인류를 말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 중 어느것을 확정적으

114) Ibid., p. 617.

“De heilige Schriften bekennen geene andere, dan een eenige bijzondere praedestinatatie der menschen tot zaligheid”

115) Ibid.

“De bijzondere praedestinatatie der menschen ter zaligheid, is tweederlei”

로 말할 수 없다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도르트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혹은 “타락한 사람중에”라고 타락후 선택을 고백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성격으로 고마루스는 “온 인류로부터(gansche menscheijk)”의 선택을 고백하였으므로 분명히 이 고백은 타락전 선택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하심과 같으니라”(롬 9:10~13). 또한 고마루스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아울러 선택의 목적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예정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다음으로 은혜의 성격도 함께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칼빈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조항에서 고마루스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예정이 소명, 양자, 견인보다 먼저 앞선다고 말한다. ACTA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소명, 양자 삼음, 견인의 은혜는 그런식으로 결정된 하나의 방법(een middel, 수단)으로써 구원 자체에 앞서 진행하나, 그러나 그 은혜는 서정에 있어서(in orde) 구원에 이르는 예정 후에 뒤따르는 것이다.”¹¹⁶⁾ 우리는 시간속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기에 인간편에서는 구원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구원의 서정이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예정하셨기에 「구원의 서정

116) Ibid., pp. 617~18.

“Doch de genade der schenking van Christus, der roeping, der aanneming tot kinderen, en der volharding, gaat voor de zaligheid zelve, als een middel, daartoe verordineerd, maar zij volgt in orde na de praedestinatie tot de zaligheid.”

(ordo salutis)」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고마루스는 예리하고 엄밀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그러나 고마루스에 반하여 항론파는 소명, 칭의, 성화, 양자 삼음, 견인 등을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그 자체는 자연의 서정에 있어서(in orde der natuur) 예정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항론파와 알미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은 하나같이 인본주의에서 신론을 해석하고 논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7번째 조항에서 고마루스는 「예지예정」을 부정한다. 이는 신앙과 그와같은 순종, 그 안에서 견인은 택함을 받을 자들 안에 있는 선택을 위해서 미리 예견된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과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반대된다고 고마루스는 주장한다(요일 4:10 ; 롬 9:16, 5:8, 10). 그러나 항론파는 반대로 예정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견된 신앙과 그와같은 순종과 견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미리 요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예정의 원인을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뜻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택자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유기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혁주의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신학의 원리를 주장한다.

8, 9, 10번째 조항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예정한 일들은 반드시 실현하시고 또한 예정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택자들의 신앙은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인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비록 어떤 때에 신앙이 적어지거나 커질지라도,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확고한 성경적 진리이

다(요 10:28, 29 ; 벰전 1:5 ; 마 24:24 ; 롬 8:30, 39).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 택함을 받은 어떤 이는 이 생에서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고, 버림받은 어떤 이는 택함을 받을 수 없다(마 24:24 ; 롬 8:30, 33, 35, 39). 고마루스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항상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과 신론적 관점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번째 항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추진하거나 움직이는 원인은 오직 전적으로 자유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요 이전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후속적인 역사이다라고 주장하여 고마루스는 엄밀한 개혁주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고백은 중요시 여겨지는데 본인은 이 조항에서도 「타락전 선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예정에서 선택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功勞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로인데 선택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두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판단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을 보면 “이런 선택의 움직임이나 작동하는 원인은 오직 전적으로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쁘신 판단이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판단밖에 어떤것도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¹¹⁷⁾”고 적혀있다. 반면에 항론파는 “이런 선택의 움직임이나 작동하는 원인은 쌍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전적인 자유로운 판단과 그리스도의 공로이다.”¹¹⁸⁾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항론

117) ACTA, p. 618.

“De aandrijvende of bewegende oorzaak van deze verkiezing is alleen het allervrijste en genadige welbehagen Gods, en derhalve niet de verdienste van Christus, noch iets buiten God.”

118) Ibid.

“De aandrijvende of bewegende oorzaak van deze verkiezing is beide het eenige en allervrijste welbehagen Gods en de verdienste van Christus.”

파는 선택의 원인을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스도의 공로 두 가지 모두라는 것이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공로사상을 주장하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한데 개혁주의는 철저히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구원의 원인을 둔다.

13번째 항에서 고마루스는 선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나 항론파는 선택에 대한 절대적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14번째 항에서는 언약사상을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말을 사용하기 전에 죽었을 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된다(Ik ben uw God en uws zaads God. 창 17장 ; 행 2:39)”는 언약의 형식(het formulier des verbondeds)에 의해서, 어린아이는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항론파는 “예지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하여 인간의 선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써 「예지예정」을 거둬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15, 16, 18번 조항에서 고마루스는 궁극적이지 아니한 예정은 성경과 반대되므로 모든 예정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이고 끝가지 견인을 통하여 구원을 한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항론파는 이와는 반대로 주장하고 결국 인간이 믿지 않으면 궁극적 예정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3) 진노에 이르는 인간의 특별한 유기에 대해서(VAN DE BIZONDERE VERWEREPING DER MENSCHEN TOT DE VERDOEMENIS)¹¹⁹⁾

119) Ibid., pp. 620~21.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김영규 교수 강의안인 “17세기”에서 전적으로 인용하였음.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112~13.

김종교, “도르트 회의 豫定論 論爭이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에 끼친 影響 考察”, p 40~41. 참조

ACTA에서 고마루스는 7개의 조항을 인간 유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고마루스는 인간의 유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유기의 원인도 인간의 행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기쁘신 뜻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 시기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창조전으로 말하고 있으며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타락전 인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고마루스는 유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정은 궁극적이지

1. 성경에서 어떤 궁극적이지 아니한 유기란 없다.
2. 궁극적 유기는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징벌하시는 의에 대한 선포를 위해서 전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은혜나 영광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같은 자들을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 가운데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죄 가운데 있도록 하시며 결국 의롭게 그들의 죄악된 의지를 징벌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결정이다(마 11:26, 7:23 ; 요 6:44, 65, 10:26 ; 롬 11:7, 8 ; 계 20:13 ; 롬 9:18, 20, 21, 22).
3. 유기자들은 결코 살아있는 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도 되지 못하며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중생되지도 못하며, 더군다나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veel minder vallen zij af van het geloof 요 10:26, 27 ; 살후 3:2 ; 딤후 1:1? -> 딤후 1:15 ; 마 7:23)
4. 그 때문에 유기자들은 택함을 받을 수 없고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은 다시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
5. 이런 궁극적이지 않은 유기는 불변하고 서로 대립적인 선택과 유기의 본성과 모순된다. 이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람이 한 시대에 두 가지 즉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비록 이에 대한 역사(uitvoering)나 혹은 의로운 진노의 원인은 인간으로부터 야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길이 참으시는(verdragen) 여러 가지 죄들 일지라도,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의로운 진노에로의 버림에 대한 앞서가서 움직이는 원인은 오직 자유로운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마 11:25, 26 ; 롬 9:16, 18, 22 ; 롬 6:23 ; 살후 1:8, 9).
7. 이는 여러 가지 죄들, 역시 자범죄가 아닌 것까지(롬 5:12, 14, 21) 그것들의 보상인 진노가 원죄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인 믿지 않은 자들의 어린아이들은 중생되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소망없이, 하나님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엡 2:3, 12). 홍수 때 세상의 불신앙의 어린 자녀들과 역시 소돔의 멸망시 불신앙적인 소돔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 멸망되고, 조상들과 함께 공의롭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벧후 2:5, 6).

아니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도 궁극적이지 아니한 유기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유기를 이야기 하면서 모든 논의의 구조를 예정(특히 선택)을 주장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예는 얼마든지 들수 있겠다. 먼저 유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전 인류 중(gansche menschelijk)에서 어떤 사람들(zekere mensen)에게는 은혜와 영광과 긍휼을 주시지 않고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다(마 11:26, 7:23 ; 요 6:44, 65, 10:26 ; 롬 11:7, 8 ; 계 20:13 ; 롬 9:18, 20, 21, 22).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 인류의 성격 역시 선택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타락한 인류인지 앞으로 타락할 인류인지, 아니면 타락전 상태의 인류를 말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의 유추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선택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도르트회의에 참석한 모든 신학자들이 “타락한 인류로부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고마루스는 “타락한”이란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전 인류로부터”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분명히 「타락전 선택」과 동일한 의미로써 「타락전 유기」가 강하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에 유기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다. 성경은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롬 9:15~18)”라고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마루스는 「타락전 선택」과 마찬가지로 「타락전 유기」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항론과 역시 그들이 예정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예지예정」을 유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여 「예지유기」를 주장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보면 “궁극적 유기는 주께서 미리 그들의 불신앙으로 죽게될 것임을 예지하였던 자들을 특별히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하여 유기인 인간의 직접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공로주의의 커다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마루스는 선택과 유기가 먼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기자들은 결코 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도 될 수 없으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유기자들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고 택함받은 자들은 다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항론파는 “유기자들도 잠시동안 구원에 이르는 택함을 입을 수 있고 다시 그 택함으로부터 영원히 버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항론파는 택함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뜻을 앞에 두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

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1~39).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되었으므로 時空의 제약을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난 결과로 죄에 관하여 사람편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의로운 진노에로의 버림에 대한 앞선 원인 역시 선택과 같은 원리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개혁주의의 모토(motto)로 삼아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세계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원인을 삼으면서도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되는 신비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힐문할 수는 없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9:18~21).

VIII.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인 「타락전 선택」

개혁주의 예정론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본인은 엄밀하게 「타락전 선택」을 개혁주의 예정론의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 도르트회의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락전 선택」과 「타락후 선택」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에서 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물론 도르트회의 에서는 「타락후 선택」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였던 반면에 웨스터민스터회의는 「타락전 선택」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났다.

도르트회의에서 예정에 관한 결정문서인 첫 번 교리 가운데 제 7항에서 타락후 선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선택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전문 소개를 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 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되었다. 택함받은 자들이 그 본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거나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비참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분과 교통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또한 그 아들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있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로우심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케 하신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엡 1:4~6).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¹²⁰⁾

여기서 분명히 타락후 선택을 밝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트회의는 전선택설을 정죄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칼빈, 베자, 피스카토르(Piscator), 페르킨스(Perkins), 호민스(Hommins), 보게르만(Bogerman)등 많은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정죄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순수하게 보이는 이들도 유기되고 정죄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죄와 상관없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짓는 사실을 의도하셨고, 그것이 발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부르심에서는 신실하게 하지 않으신다”¹²¹⁾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120) “개혁신학 신앙고백서”, 최병섭 엮음, pp. 412~13.

“VII. Est autem Electio immutabile Dei propositum, quo ante jacta mundi fundamenta e universo genere humano, ex primaeva integritate in peccatum et exitium sua culpa prolapso, secundum liberrimum voluntatis suae beneplacitum, ex mera gratia, certam quorundam hominum multitudinem, aliis nec meliorum, nec digniorum, sed in communi miseria cum aliis jacentium, ad salutem elegit in Christo, quem etiam ab aeterno Mediatorem et omnium Electorum Caput, salutisque fundamentum constituit; atque ita eos ipsi salvandos dare, et ad ejus communionem per verbum et Spiritum suum efficaciter vocare ac trahere, seu vera in ipsum fide donare, justificare, sanctificare, et potenter in Filii sui communionem custoditos tandem glorificare decrevit, ad demonstrationem suae misericordiae, et laudem divitiarum gloriosae suae gratiae: sicut scriptum est, Elegit nos Deus in Christo, ante jacta mundi fundamenta, ut essemus sancti et inculpati in conspectu ejus, cum charitate; qui praedestinavit nos quos adoptaret in filios, per Iesum Christum, in sese, pro beneplacito voluntatis suae, ad laudem gloriosae suae gratiae, quo nos gratis sibi acceptos fecit in illo Dilecto. Ephes. 1:4-6. Et alibi, Quos praedestinavit, eos etiam vocavit, et quos vocavit, eos etiam justificavit, quos autem justificavit, eos etiam glorificavit, Rom. 8:30.”

그리고 마코비우스(Maccovius) 역시 고마루스(F. Gomarus, Rivetus), 아메시우스(Festus Hommius W. Amesius), 뵈투스(G. Voetus)처럼 강한 타락전 선택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유기자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결국 파멸한다(Reprobos necessario peccare ac tandem perire),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과 개인들의 구원을 원치 않았다(Christus non vult omnium et singulorum salutem)”¹²²⁾ 마코비우스는 죄를 짓기전에 유기를 하였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유기를 통하여 마코비우스는 「타락전 선택」을 말하고 있다.

또한 화란의 신학자인 루베르투스(Sibrandus Lubbertus)도 선택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락전 선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이렇다. “죄들의 은혜로운 허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 공홀일 수 없고 시간상 하나님의 외적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형벌로 정하셨다(Deum destinare aliquos ad poena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도하셨고 죄가 하나님께서 시준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non possumus negare, quin Deus intendat peccatum, et peccatum sit finis, ad quam Deus collimat)”. 도르트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택을 “타락한 인류로부터”라고 주장하였는데, 루베르투스도 고마루스처럼 선택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예지된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예정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선택의 대상은 “타락한 인류”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선택과 같은 논리로 유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을 형벌로 정하셨다고 주장한다.

한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격은 이 고백에 참가한 퓨리탄들이 알미니안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확고한 「타락전 선택설」에 기초하여

121)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 p. 526.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p. 328.

122) 김영규, 17세기, pp. 32~33.

작성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르트회에서는 「타락 후 선택설」을 기초하여 작성하였고 「타락전 선택」을 허용하는 정도에서 끝났으나 웨스터민스터회의는 도르트회의와는 반대로 「타락전 선택」을 기초로하여 작성하였고 「타락후 선택」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끝마쳤다.¹²³⁾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예정에 관하여는 제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락전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5번 6번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뜻의 비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엡 1:4,9,11 ; 롬 8:30 ; 딤후 1:9 ; 살전 5:9).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실 때 그는 우리의 신앙이나 선행 혹은 이 들중 하나의 견인(堅忍)이나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시지 아니하셨다(롬 9:11,13,16 ; 엡 1:4,9).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었다”(엡 1:6,12).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선택의 대상을 “온 인류로부터”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고마루스를 비롯한 엄밀한 개혁자들이 이미 주장했던 문구와 같은 문구이다. 그러므로 웨스터민스터에서는 도르트회의보다 한 층 더 엄밀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6번 조항에서는 칼빈이 주장한 「선택의 제3목적」을 명확히 묘사하므로 칼빈주의에 확고히 머무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아담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타락을 허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타락이 오는 순서를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까지도 예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정하셨듯이 그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이 영광에 이르는 모든

123) Ibid., p. 51.

은혜의 수단을 미리 제정하셨다(벧전 1:2 ; 엡 1:4,5, 2:10 ; 살후 :1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살전 5:9,10 ; 딤후 2:14). 즉, 이 피택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다. 상론하면 이신칭의(以信稱義)받고, 양자되고, 성화(聖化)되고(롬 8:30 ; 엡 1:5 ; 살후 2:13),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힘의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자들만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칭의를 얻고, 성화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택자들 이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 에 참여할 수 없다(요 17:9 ; 롬 8:28 ; 요 6:64, 8:47, 10:26 ; 요일 2:19)고 웨스터민스터회는 결정을 했는데 다음의 성경 구절에 충실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타락전 선택」을 주장한다. 칼빈과 고마루스를 비롯한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은 「타락전 선택」을 주장하였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또한 「타락전 선택」의 성격으로 고백하였기에 그러므로 본인은 「타락전 선택」을 「엄밀한 개혁주의」와 장로교회의 표준으로 제시한다.

IX. 結 論

이 논고를 서술하면서 본인은 서두에서 삼위일체의 구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삼위일체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창세 이후로 시간의 흐름속에서 계시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리고 신약 이후는 성령님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어느 특정한 위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논의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를 정리할 수 있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경륜적 통일이 아니고 통일적 경륜인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예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예정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점과 모든 사역들도 같은 이유이겠지만 예정만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통합적인 원리로써 삼위일체적 조명이 있을 때에 예정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와 예정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 되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역하신다.

그리고 끝으로 「엄밀한 예정」인 「타락전 선택」에 관하여 칼빈과 고마루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혁주의들은 하나같이 예정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하였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찌 이런일이 가능한가?를 물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대답은 간단하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르트회의와 웨스터민스터회의에서 드러난 결정문서를 살펴보면 그 증거는 자명한 것으로 어떤 조항이던지 그 조항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참으로 Tota Scriptura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확고히 붙들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인 신론적인 접근이 가능하였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선험적인 방법을 도출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예정을 논하면서 특히 엄밀한 선에서 타락전 선택설을 주골격으로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논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중시했던 개혁주의 선진들의 전통에 머물기 원함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정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행동과 공로를 중요시 여기는 인간중심의 예정을 말하므로 예정의 주체를 인간쪽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편의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예지하신다는 미명아래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타락전 선택을 주장한 개혁주의자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한 셈이다.

정반대로 예정이 인간의 구원에만 관계한 것으로만 다루면 또 다른 인간중심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한 목적을 세가지로 밝혔듯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수단으로서의 구속이요, 셋째는 악인들도 악한날에 적당하게 하기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구속과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칼빈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한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재차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그 만큼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칼빈이 말한 두 번째 목적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은 극도의 Egoism(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학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예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간학에서 출발하는 인간중심의 신학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공로를 드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과 고마루스뿐만 아니라 잔키우스(Jerom Zanchius)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삶(to life, 생명)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예정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공정하게 필연적으로 겪게 될 죽음으로의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예정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으로 주장한다.”¹²⁴⁾

이것이 바로 엄밀한 개혁주의의 주된 핵심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라고 소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도 잘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예정 교리」보다도 그 중에서도 「타락전 선택」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나는 그 것이 좀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엄밀한 개혁주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고양하는 것은 예정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본인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Soli Deo Gloria !

124) Jerom Zanchius,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 by Augustus M. Toplady, (Edmonton AB. Canada : Still Waters Revival Books), p. 85.

"We, with the Scriptures, assert that there is a predestination of some particular persons to life for the praise of the glory of Divine grace, and a predestination of other particular persons to death, which death of punishment they shall inevitably undergo, and that justly, on account of their sins."

- 참고 문헌(Bibliography) -

I 성경

NESTLE-ALAND, NOVUM TETAMENTUM GRAECE, 26 neu bearbeitete Auflage, © 1998 und 1979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개역 한글판 성경, 대한 성경 편찬위원회, 1990.

II 1차 자료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lated by Henry Cole.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1950).

H. H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1998).

Jerom Zanchius,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 by Augustus M. Toplady.

J.H. Donner en van S.A. Den Hoorn,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LE SYNODE TE DORDRECHT TEN JARE 1618 EN 1619, (1669).

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 Sola scriptura und der trinitarische Gott als alleiniger Autor des Alten Testaments, (1994).

DR. W. van T SPLJKER - DR. C. C. DE BRUIN - DRS. H. FLORIJN DS. A. MOERKERKEN - H. NATZIJL, De Synode van Dordrecht in 1618 en 1619, (1994).

William Cunningham, "Historical Theology", volume 1, (1991).

III 2차 자료

김광채, "近代 現代教會史", (1992).

김성봉, "지난 2000년의 신학과 미래와 신학", (1999).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1", (1999).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1997).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1999).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I", (1999).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헤롤드 나이트 영역, 기독교 학술연구원 國譯, (1997).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이상원 共譯, (1999).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 譯, (1998).

이형기 편저, "세계개혁교회의 信仰告白書", (199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포드 배틀즈 서론/양낙홍 옮김, (199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共譯, (1997).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譯, (1997).

존 칼빈,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共譯, (1991).

최병섭 譯,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1996).

헤르만 바빙크 著, “계시 철학”, 위거찬 譯, (1990).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譯, (1994).

III 3차 차료

김종교, “도르트 회의 豫定論 論爭이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에 끼친 影響 考察”, (1998).

조성재, “엄밀한 개혁주의에서 본 G. Vos의 성경신학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유용성과 한계점 고찰”, (1998).

신학지남, 제 30 권 제 4 호, 여운세, “예정교리 발전사”, (1963, 12).